

2025 싱가포르 진출전략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비즈니스 환경 분석

진출전략



Contents

I.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1
1. 개요	1
가. 시장 전망	1
나. 주요 경제지표	1
2. '25년 주요 이슈 및 전망	2
가. 장단기 발전과제 : 내수경제 지원, 신임 내각 국정 운영계획 수립	2
나. 고령화 사회 대응 : 인구문제 해결, 노인복지, 디지털 헬스케어	4
다. 모빌리티/AI 신산업 : 모빌리티 기술 및 인프라, 주요 AI 트렌드	6
라. 공급망 확대 전략 : 파트너십 체결, 물자, 식품, 에너지 협력 강화	7
마. 지속가능한 녹색경제 : 탈탄소, 재생에너지, 기후변화 대응 정책	8
II. 비즈니스 환경 분석	10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10
가. 정치 환경	10
나. 경제 환경	11
다. 산업 환경	14
라. 정책·규제 환경	22
2. 시장 분석	24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24
나. 교역	25
다. 투자	28
3. 한국과의 경제교류 및 주요 경험 의제	31
가. 교역	31
나. 투자 진출	33
다. 협력 유망 분야	34
III. 진출전략	36
1. PEST 분석	36
2. SWOT 분석 및 전략 도출	37
3.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38
첨부 1. 수출 유망 품목 (상품)	46
첨부 2. 수출 유망 품목 (서비스)	49
첨부 3. '25년도 KOTRA 주요 사업 (잠정)	50
첨부 4. '25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51

1. 개요

가. 시장 전망

□ 2025년 싱가포르 경제, 2024년에 이어 안정적 성장을 전망

- '24년 싱가포르 경제, 전년 대비 1%p 성장한 2%대 성장 전망
 - 주요 교역국의 경기 회복과 인플레이션 완화와 전자산업 회복 영향으로 싱가포르 통상산업부(MTI)는 주요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1~3%)에서 2%대로 보다 안정적으로 수정 발표
 - * 주요 기관별 GDP 성장률 전망치 : (IMF) 2.1%, (ADB) 2.4%
 - 단, 싱가포르 정부는 미·중 양국 관계와 산업 생태계 변화, 지정학적 긴장 등 글로벌 이슈에 따른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언급(2024.09, Straits Times)
- 2025년 경제 2% 내외로 성장 전망
 - 블룸버그(Bloomberg), 2025년 싱가포르 경제성장률 2%로 예상,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2%로 물가 부담 완화될 것으로 기대

나. 주요 경제지표

주요 지표	단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인구	백만 명	5.63	5.70	2.69	5.45	5.64	5.70	6.04	*6.1
명목GDP	십억 달러	376.9	376.8	348.4	423.8	466.8	673.0	176.0a	-
1인당 명목GDP	달러	66,837	66,070	61,274	77,710	82,808	87,887	95,000	-
실질성장률	%	3.6	1.3	-3.9	8.9	3.6	1.1	*2.9	-
실업률	%	2.1	2.3	3.0	2.7	2.7	2.0	1.9a	-
소비자물가상승률	%	0.4	0.6	-0.2	2.3	6.1	4.8	*1.9	-
재정수지(GDP대비)	%	15.2	14.5	16.8	18.1	19.3	7.1	-	-
총수출	백만 달러	412,813	390,652	368,096	457,564	514,945	475,315	289,584a	-
(對韓 수출)	"	15,679	15,213	16,706	19,706	20,825	20,653	12,232a	-
총수입	"	370,650	359,180	329,064	406,774	551,385	475,315	262,734a	-
(對韓 수입)	"	14,198	13,728	15,573	22,173	30,633	25,665	17,049a	-
무역수지	백만 달러	42,163	31,472	39,032	50,790	-36,440	52,760	26,848(a)	-
경상수지	"	79,893	83,045	79,080	102,607	124,410	61,584		
환율(연평균)	현지국/US\$	1.35	1.36	1.38	1.34	1.38	1.33	-	-
해외직접투자	억 달러	894	1,041	1,150	1,251	2,619	-	-	-
외국인직접투자	억 달러	1,726	1,917	2,146	2,479	2,494	-	-	-

주: a는 '24년 7월 누계 기준, *는 추정치, 2024년은 전망치, 투자는 Stock 기준
 자료: IMF, 한국무역협회(KITA), 싱가포르 통계청(Singstat), MTI

2. '25년 주요 이슈 및 전망

글로벌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싱가포르의 신임 내각이 추진하는 장단기 발전과제를 중심으로 내부적으로는 내수경제 지원 및 인구 문제 해결, 대외적으로는 AI에 기반한 모빌리티 신산업 및 첨단산업 육성, 공급망 확대 전략을 위한 국가 간 협력 다각화, 친환경 및 에너지 부문의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변화를 지속할 것으로 보임

가. 장단기 발전과제 : 내수경제 지원, 신임 내각 국정 운영계획 수립

□ 장단기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내수경제 지원 예산안 수립

- Budget 2024, 사회적 지원 및 경제 회복 중점. 내수경제 강화부터 산업 육성까지 공략
 - 싱가포르 정부는 예산안 발표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민생경제를 돌보고, 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 인구 고령화, AI 기술 등 과제도 해결 의지를 밝힘
 - 예산안 주요 목표는 ①민생경제 지원을 비롯해 ②인적자원 투자, ③기업 지원 및 성장 강화, ④지속 가능한 미래 건설로 분류

〈Budget 2024 주요 내용〉

영역	구분	내용
민생경제 지원	개인	개인 현금 지급, 개인 소득세 리베이트, 의료보험 추가 제공, 연금(CPF) 보조금 지급 등
	가정	가구당 바우처 지급, 저소득 가정 학비 보조금 강화, 노인가구 지원 등
인적자원 투자	개인	종년층 역량 강화 비용 지원, 저임금 노동자 지원제도 강화(최저급여 인상) 등
기업 지원 및 성장 강화	기업	비용 부담 완화책(법인소득세 최대 50% 리베이트(최대 4만 달러) 등)
	산업	연구혁신 이니셔티브(RIE 2025) 투자, 국가 AI 전략 2.0 투자 강화, 에너지 효율성 보조금 확대
지속가능한 미래 건설	산업	에너지 전환 인프라 투자, 국가 사이버 보안 지휘센터(National Cybersecurity Command Centre) 설립
	개인	스포츠 시설 건설, 주요 스포츠 행사 유치, 문화예술 투자

자료: 싱가포르 정부

□ 신임 로렌스 왕 총리 공식 취임. 2025년 정국 운영 방향

- 로렌스 왕 4대 신임 총리, 'National Day Rally' 발표(2024.8)
 - 국경일 집회 연설은 국내 주요 정책을 함께 발표하는 가장 중요한 정치적 연설 중 하나로, 신임 내각 차원의 주요 정책을 들여다보는 의미가 있음

- 주요 대응 과제와 방안으로는 ①공급망 재편-규제 완화, ②저출산 해결-육아휴직, ③인적자원-교육 시스템 개편 및 ④지속가능한 개발-스포츠 시설 건설 등의 내용이 언급되었음

〈정연설 키워드별 주요 내용〉

영역	구분	내용
민생경제 지원	가정	부모 공동 육아휴직 기간 확대 및 의무화
	주택	부부, 독신자, 노년층 등 저소득층 주택 지원 강화
인적자원 투자	의무교육	영재 교육 프로그램(Gifted Education Programme) 개편 및 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 등 모국어 학습 강조
	고등교육	ITE, 폴리테크닉, 예술대학 대상 정부 지원금 확대
기업 지원 및 성장 강화	기업환경	미-중 지정학적 경쟁에 대한 전략으로 규제 완화 및 기업 유치 강조
	일자리	일자리 구직자 대상 최대 6,000달러를 지원하는 Skills Future 제도 도입
지속가능한 미래 건설	인프라	칼랑 얼라이브 마스터플랜(Kallang Alive Masterplan)으로 18,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실내 경기장 건설
	건설	미래형 도시개발을 위한 120km 길이의 주요 워터프론트 해안선 건설

자료: 싱가포르 정부

□ 사회 안정과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장기 정책

- **정부와 시민 협력으로 교육, 일자리, 돌봄, 노년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개선 추구. 경제적 포용 및 미래 대비**
 - ‘Forward SG’ 이니셔티브 : 싱가포르가 직면한 경제적·사회적·환경적 과제를 해결하고, 시민과 정부가 협력해 포용적인 미래를 만들기 위한 종합적인 국가 계획(2022)

〈‘Forward SG’ 이니셔티브 주요 내용〉

대상	내용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학교의 *입학사정관제 확대 (현재 10% 수준에서 증가) - AI 및 맞춤형 학습 기술 도입으로 학생 개인별 맞춤 교육 제공 - 학업 능력 중심의 수준별 수업 폐지 - 청소년 자문위원회(2023년 출범)를 통해 청년층의 정책 참여 강화
기술 및 돌봄 직종 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TE(기술고등학교) 대상 재정적 지원 강화 (예: 주택 구입, 은퇴 자금 지원) - 기술직 및 돌봄 직업의 *경력 경로 개선과 소득 증대 지원 -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기존 정책 정기적 재검토
중년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killsFuture 학습비 추가 지원 - 장기 교육 휴직 시 수당 제공 - *비자발적 실직자를 위한 지원 (구직 활동 시 재정적 지원 포함)

대상	내용
부모	- 2025년까지 영유아 돌봄 시설 수용 인원 70% 증가 (9천 명 추가) - 안전하고 저렴한 아동 돌봄 서비스 도입 - 부모 유급 휴가 확대 검토 - *ComeLink+ 프로그램을 통한 가족 맞춤형 서비스 지원
돌봄 제공자	- 특수 교육 및 조기 개입 서비스 비용 지원 확대 - 돌봄 제공자 지원 그룹 및 관련 자원 접근성 향상 - 유연 근무제 및 돌봄 휴가제와 같은 정책 검토
장애인	- 24시간 *가정 교통 신호기 (325개 보행자 도로에 설치 예정, 2024년 완료) - 지적 장애인 의료 서비스를 위한 의사 교육 과정 신설
노년층	- 은퇴 자금 강화 : Silver Support 및 Matched Retirement Savings 프로그램 개선 - 지역사회 지원 및 돌봄 서비스 확대 : 2025년까지 80%의 노인이 노인 활동 센터 근처로 이주, 가정 내 노인 돌봄 지원 서비스 확대 - 보행 환경 개선 : 친화적인 보행 도로 및 보도 조성 - 주택 선택권 확대 : 노인 맞춤형 주택 신설 옵션 제공
모든 싱가포르 국민	- 정부와 국민 소통 강화를 위한 'Singapore Government Partnerships Office(SGPO)' 신설 - 기부와 지역사회 연결 프로그램 개발 - 다양한 집단 간 교류 공간 확대 (예: 자조 그룹 간 협력 활성화)

* 입학사정관제: 학생이 시험 성적 외에도 스포츠, 예술 등 다양한 재능과 성취를 바탕으로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경력 경로 개선 및 소득 증대 : 간호사, 정비 직종 등의 사회적 인식과 보상 개선

* SkillsFuture : 정부가 성인 근로자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

* 비자발적 실직자 : 실직 후, 적극적으로 구직 중인 사람들에게 재정 지원 제공

* ComeLink+ :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프로그램으로, 각 가족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 가정 교통 신호기 : 시각 장애인을 위한 교통 신호 시스템

* Silver Support & Matched Retirement Savings : 저소득 노인을 위한 생활비 지원 및 은퇴 저금 매칭 프로그램

* Age Well SG :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노인들의 사회적 참여 촉진 프로그램, 사회적 고립 방지 목표

자료: 싱가포르 정부 'Forward SG' 공식 홈페이지

나. 고령화 사회 대응 : 인구문제 해결, 노인복지, 디지털 헬스케어

□ 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한 노인복지 강화, 지원 프로그램

• 저출산·고령화 문제 심화로 의료보험 및 건강 지원 관련 정부 지출이 급증, 성장동력 약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활발하게 추진 중

-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 2024년 기준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 이를 위해 정부는 정책 및 이니셔티브 추진 ①노인복지 프로그램, ②주거 보조금 프로그램, ③샌드위치 세대 지원 등이 포함됨

- 'Age Well SG' : 고령 인구의 복지 증진에 목표를 두는 종합적인 프로그램으로, 2030년까지 노인 인구의 30%가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 가족과 커뮤니티가 노인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둬. 친구 만들기 서비스, 신체 운동 수업,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등이 포함됨. 35억 싱가포르 달러가 배정됨

- 2025년까지 능동적 노화 센터(AAC)의 수를 220개로 늘리며, 노인 10명 중 8명이 이러한 지원 및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자료: Ministry of National Development), 샌드위치 세대(노부모와 자녀를 동시에 부양하는 세대를 의미)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고 있으며, 재정 지원, 간병 지원 제공이 포함됨 * 세금 공제 강화, 스트레스 해소 위한 정신 건강 프로그램 제공 및 심리 상담, 샌드위치 세대 간의 커뮤니티 개설 등

〈'Age Well SG' 주요 이니셔티브 내용〉

주요 이니셔티브	내용
건강관리 지원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 검진 및 예방 프로그램 제공, 조기 발견과 치료 지원
사회적 연결 증진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 및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사회적 고립 방지, 정신적 웰빙 향상
자원봉사 기회 제공	노인이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 기회 제공, 사회적 연결성과 자존감 증진
정보 및 상담 서비스	노인과 그 가족에게 필요한 정보 및 상담 서비스 제공, 복지 혜택 및 자원에 대한 접근성 향상

자료: Forward SG

□ 스마트 헬스케어, 홈케어 등 노인 인구 문제 대응 전략

- **고령화 사회 대응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 솔루션 적극 도입을 위해, 원격 진료,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주택 내 장치들이 주요 전략으로 채택되는 중 (2024.09, Smart Nation Singapore)**
 - 원격 진료(Telemedicine) 관련, 약물 처방 및 건강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고령층에 특화된 원격 진료 프로그램을 통해 만성 질환 관리, 정기 건강 검진 가능 (2024.04. The Smart Local)
 - * Doctor Anywhere, WhiteCoat와 같은 노인 대상 원격 진료 플랫폼 사용
 - 안전한 고령자의 생활 지원을 위해 Smart Home 시스템 적극 도입. 노인 맞춤형 주거 및 돌봄 서비스 제공 아파트(Community Care Apartments(CCA)) 등으로, 주택 내 AI 기반 건강 모니터링, 응급 상황 감지 시스템, 자동화 조명 설치, 주기적 건강 검진, 24시간 응급 대응 시스템이 설치됨. 웨어러블 로봇 개발로 균형을 잃기 쉬운 노인들을 위해 설계된 로봇으로, 엘리베이터 탑승, 문을 여는 등의 일상적인 작업을 지원함
 - * MRBA(Mobile Robotic Balance Assistant)로 Nanyang Technology University(NTU)와 Tan Tok Seng Hospital(TTSH) 공동 개발 (2022.09, Nanyang Technology University)
 - * 보건부(MOH), 국가개발부(MND)가 공동 진행 중인 'Harmony Village' 프로젝트로, 2024년 완공 예정 (2024.08, Channel News Asia)

다. 모빌리티/AI 신산업 : 모빌리티 기술 및 인프라, 주요 AI 트렌드

□ EV, AV 등 모빌리티 시장 최신 기술 동향

- **미래형 모빌리티 관련 산업군이 첨단 기술 및 인프라 구축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 관련 시장 수요 지속적으로 증가.**
 - 2024년 COE(자동차등록제) 쿼터가 늘어나면서, 자동차 부문의 소매 판매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EV 배터리를 중심으로 한 파생 시장, 라이다 및 레이더 등을 중심으로 하는 AV 시장 규모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
 - ① 전기차(EV) : 싱가포르 정부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청정에너지 전환정책의 일환으로 2040년까지 내연기관 차량을 퇴출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음(2025년부 디젤차량 신차 등록 불가능)
 - 전기차 사용 확대를 위해 정부는 2021년 1분기, 싱가포르 국토교통청(LTA, Land Transport Authority) 산하의 국립전기차센터(NEVC, National Electric Vehicle Centre)를 설립하여 전기차(EV) 충전 인프라의 신속한 확충, 새로운 EV 규정, 보조금 등 혜택 제도 및 표준 개발을 포함해 전기차(EV)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생태계 육성에 힘쓰고 있음
 - ② 자율주행차(AV) : Smart Nation(스마트 국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자율주행 기술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싱가포르는 혁신 기술의 도입을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 특히, 싱가포르는 자율주행 기술을 대중교통 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신도시 지역인 텡아(Tengah), 풍골(Punggol), 주롱혁신단지(Jurong Innovation District) 등에 자율주행 버스 시험 운행 중에 있음
 - 미래형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한 첨단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자율주행 데이터 학습 등 AI 솔루션 및 인프라가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는 AI 및 Data center 시장과도 관련성이 높음

□ AI 활용 스마트 인프라 확충을 위한 데이터 센터 건립

- **싱가포르 정부, AI를 활용한 사회의 주요 과제 해결 목표**
 - 스마트 도시관리, 차량 등 부문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산업과 사회에 최적화된 새로운 변화를 유도, 국민생활 개선 목표
 - 스마트네이션청을 주도로 하는 국가 전략에 맞추어 건물·건설청, 국토·교통부, 식품청 등 다양한 정부 부처에서 단계별 계획 마련
 - 낮은 식량 자급도 해결, 교통 혼잡도 감소 및 지속가능한 친환경 공간 등 도시국가의 특성에 맞춘 실용적인 기술 접근 특징
- **고성능 컴퓨팅 시스템 및 데이터센터 등 주요 인프라 확장에 대한 국가 주도 계획, 예산 및 자금 투자 확대 추세**
 - 싱가포르 정부는 2024년 예산안에서 AI 혁신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5억 싱가포르 달러를 HPC 자원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음('24.03)

- 국립 슈퍼컴퓨팅센터(NSCC), AI 싱가포르(AISG) 등 유관기관 중심 산-학-연을 아우르는 협업 구축으로 AI 인프라 확대, 또한 글로벌 AI 허브로서 규제 완화,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한 글로벌 기업과의 인프라 구축 협력 기회 확대

* 데이터 용량을 3분의 1 이상 늘릴 구체적인 계획 보유(최소 300MW의 데이터센터 용량 추가, 친환경 에너지 옵션을 사용하는 사업자에게만 200MW가 추가로 할당)

* 기술 공학기업 ST Engineering은 태양광 패널 등을 설치한 지속가능한 데이터센터 구축* 목적으로 향후 3년간 1억 2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계획 발표('24.6)

라. 공급망 확대 전략 : 파트너십 체결, 물자, 식품, 에너지 협력 강화

□ 미·중 경쟁 속 싱가포르의 경제적 우려와 공급망 전략

- 미·중 경쟁 심화로 경제적 위험 증가 등 무역, 안보에 취약함 인지.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무역 다각화를 통해 경제적 위험 최소화 계획

- 싱가포르는 안보 파트너인 미국과 최대 무역 파트너인 중국 사이에서 양국과 모두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난제가 있음. 공급망 재편으로 각국이 제조업을 리쇼어링하고 기술 자립을 추구하며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환경 또한 우려 요소임

- ASEAN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 강화 및 무역 네트워크 확장 : ①조호르-싱가포르 경제 특별 구역(Special Economic Zone, SEZ) 구축을 통한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입 증가(제조업, 금융 및 보험, 건설, 도소매), ②ASEAN 전력망 프로젝트 진행(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라오스 등 참여)하여 각국의 전력망을 연결해 재생 가능 에너지 생산 및 분배 ③물류 및 인프라 투자를 확대해 대외 의존도를 줄이려는 방안 모색

- 디지털 및 녹색경제 분야에서의 투자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 구축 : ①탄소 배출 최소화, ②스마트 기술을 도입한 공급망 관리 등

□ 공급망 안정화 및 다각화를 위한 국가 간 파트너십, 협력 강화

- 싱가포르 정부, 글로벌 허브로서 공급망 생태계 관리와 교역 확대에 집중

-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IPEF) 공급망 협정 : 미국, 싱가포르, 일본, 인도, 피지, 태국, 말레이시아 간의 글로벌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협정. 공급망 혼란 시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 네트워크를 통해 주요 필수 품목 공급 보장, 공급망 혼란 최소화, 안정적 무역과 경제 협력 촉진 전망. 반도체, 의약품, 희귀 광물과 같은 전략적 필수 품목이 주요 대상임 (2023.11.14., IPEF) *2023.11.14. 협정 서명, 2024.02.24. 협정 발효

- 2024.06.06. 주요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해 IPEF의 청정 경제 협정, 공정 경제 협정이 추가 체결됨 (2024.06, MTI)

• **미국, 호주 등 디지털 및 녹색경제 분야에서의 지속가능 성장 모델 구축**

- 2021년 체결한 싱가포르와 미국 간 체결한 공급망 협정을 더욱 강화하여 2023년 12월 공급 보장 협정(Security of Supply Arrangement) 서명. 예상치 못한 공급망 중단을 관리하고 필수 산업 자원의 우선 배달 요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협정으로 방위 협력 강화를 통해 양국 간 방위 기술 협력이 지속되며, 군사 간 교류 및 훈련 활동도 포함됨 (2023.12, The Straits Times)

* 2021 싱가포르-미국 공급망 협정 체결(U.S-Singapore Supply Chain Agreement) : 디지털 경제, 첨단 제조, 헬스케어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공급망의 회복력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함. 무역과 투자 증가, 공급망 회복력 향상, 양국 간 경제적 유대 강화가 기대됨 (2024.08.23., The White House(.gov))

- 싱가포르와 호주 양국 간 경제 성장과 배출 감소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협력을 체결. 저탄소 연료 공급망 공동 개발 등 2025년까지 그린 및 디지털 해운 회랑을 설계해 지속 가능한 공급망 형성 목표. 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과 무역 촉진에 중점을 둠 (2022.10,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 2022년 10월 싱가포르-호주 녹색 경제 협정 체결(Singapore-Australia Green Economy Agreement, GEA)

• **식량 안보 관심 지속으로 필수 식품 공급망 연결 논의**

- 총 식품의 90%가 수입되고 있어 식품 인플레이션, 식량 수출 금지 등의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식품 안보를 위해 노력

- 대내외 식량 공급원을 다각화하기 위해 수입국가를 다변화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도심농장 및 스마트팜을 통해 내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노력

- 참고로, 싱가포르 정부는 '30 by 30'으로 2030년까지 식품 자급자족비율을 30%까지(현재 10%) 확대하기 위한 목표를 발표

* 2020.06 싱가포르-프랑스 필수 식품 공급망 연결성 논의(Supply Chain Connectivity for Essential Food Supplies) :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양국의 식량 안보를 강화하고, 공급망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논의. 농업 및 식품 유통 협력 강화를 통해 장기적인 식량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 약속 (2020.06.08., MTI)

마. 지속가능한 녹색경제 : 탈탄소, 재생에너지, 기후변화 대응 정책

□ 녹색경제 실현을 위한 친환경 재생에너지 개발

• **'National Hydrogen Strategy' 추진방향 발표(2022.10)**

- 2050년까지 Net Zero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 탈탄소화 경로로 개발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가전략

- 주요 5가지 추진 방향을 제시 : ①첨단수소 활용 실험, ②연구개발 실시를 통한 발전, ③정부-업계-국제파트너 간 협력을 통한 저탄소 공급망 형성 및 확대, ④새로운 인프라 개발, ⑤기업에 대한 기회와 인력 개발 제공

〈싱가포르 주요 미래 에너지원〉

에너지원	방향
천연가스(Natural Gas)	천연가스 공급원 다양화 및 발전 효율 향상 목표
태양열(Solar)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통한 태양광 에너지 극대화
지역 전력망(Regional Power Grid)	지역 전력망을 통한 청정 에너지 수입, 지역 재생에너지 개발 촉진
저탄소 대체재(Low-Carbon Alternatives)	지열, 수소 발전과 같은 저탄소 대안 투자

자료: MTI

• **신재생에너지원 개발 및 교역 확보를 통한 지속가능성 구현**

- 싱가포르 통상산업부(MTI), 글로벌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재생가능 연료에 대한 새로운 무역 흐름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고 언급(2023.09)
- 싱가포르 에너지시장청(EMA), 청정 에너지 분야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과 자금 지원 방안을 마련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연구 프로젝트**

• **해수면 상승과 홍수 등 미래 기후변화에 대응**

- 싱가포르는 지리적 위치 및 저지대 지형으로 해수면 상승과 폭우 등 기후변화에 취약하며, 2100년까지 싱가포르 주변 해수면이 최대 1m 상승할 것으로 예상
- 싱가포르 국립수자원청(PUB), 해수면 상승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싱가포르 국립대 NUS와 함께 연구센터 CFI Singapore(Coastal Protection and Flood Resilience Institute) 설립(2023.09)
 - * 지속가능성 및 환경부에서 1억 2,500만 싱가포르 달러 예산을 투입한 해안 보호 및 홍수 역량 관리 프로그램의 일환
 - * NUS(National University Singapore) 중심으로 4개 파트너 기관(난양기술대학교, 싱가포르 기술디자인대학교, 싱가포르기술연구소, 과학기술연구청)이 싱가포르 맞춤형 혁신 솔루션 개발을 위한 연구 프로젝트 수행 예정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글로벌 경기 회복과 제조업 반등으로 2024년 기준 경제성장은 소폭 성장, 2025년 지속될 것으로 전망. 인공지능 활용 및 친환경 전환 등 신기술을 바탕으로 기존 산업의 지속가능성 실현 및 디지털화 확산 중이며 에너지, 식량 등 자원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

가. 정치 환경

□ 싱가포르 정치구조 및 주요 역할

• 의원내각제 정치체제

- 국가원수는 대통령이나, 총리가 정치 및 행정 분야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
- 여당으로는 인민행동당(People's Action Party, PAP), 야당으로는 노동자당 등이 있음

* 싱가포르는 공화국이며, 다당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1965년 이후 제1야당인 노동당과 함께 인민행동당이 지배적인 정당으로 자리 잡고 있음. 독립 이후 선거로 인해 의회가 공전된 적이 없기에 소수 정당은 흔하지 않음. 현재 싱가포르는 실질적인 일당제로 운영

• 싱가포르 제9대 대통령 '타르만 산무가라트남'

- 12년 만에 열린 2023년 싱가포르 대선(2023.9.1)에서 부총리 겸 수석장관을 역임한 인도계 정치인 타르만 산무가라트남(Tharman Shanmugaratnam)이 70.4%의 높은 득표율을 얻으며 제9대 대통령으로 당선
- 당선인은 인도계로 싱가포르 중앙은행인 싱가포르통화청(MAS) 회장, 전 재무장관을 역임한 경제 관료 출신의 정치인으로 PAP에서 여러 요직을 거침
- 싱가포르인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어 정치적 스펙트럼 전반에 걸친 지지를 받았다고 평가받았으며, 공개경쟁을 통한 직접선거 중 최초로 당선된 비종국인 대선 후보라는 점에서 현지 언론은 주목했음
- 싱가포르에서 대통령은 의례적인 역할을 주로 수행해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도됨

• 싱가포르 총리 '로렌스 왕'

- 싱가포르 공화국의 총리는 싱가포르의 행정 수반이며, 실질적 권력 기관인 내각의 대표. 또한 모든 국가의 권한과 정치적 실권을 가지고 있어 정치적 영향력이 가장 큰 자리

- 2020년 선거 결과, PAP가 전체 93석 중 83석을 차지하여 싱가포르 차기 정부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게 되었음
- 단, PAP가 승리를 거두었으나 지난 2015년 총선 때의 승리(69.9%)에 비해 2020년에는 지지율(61.2%)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2024.5.15.부로 로렌스 웡이 20년간 이어진 장기 리더십을 교체하며 4대 총리로 신규 취임. '포스트 리(Post Lee)' 국가체제 구축, 2025년 다가올 총선에서의 PAP 지지율 재건, 글로벌 리스크 대응 및 성장동력 발굴 등의 과제를 가지고 있음

나. 경제 환경

□ 2024년 주요 경제지표

- **(경제성장률) 2024년 상반기 경제성장률 연평균 3.0% 성장하며 안정적인 확장세**
 - 2024년 상반기 경제성장률 분기별 전년 동기 대비 1% 이상 기록(1분기 +3.0%, 2분기 +2.9%)
 - 도매 무역, 금융 및 보험, 정보 통신 부문 실적 경제 성장 주도
 - 제조업 부문, 바이오제약 생산 감소로 위축세. 소매 및 외식업 부문, 현지 소비자들의 해외여행 증가로 부진 기록

〈싱가포르 산업 부문별 성장률 (2022~2024년)〉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전체	전체	1분기	2분기
상품생산산업	2.9	△2.9	△0.6	0.0
제조업(Manufacturing)	2.5	△4.3	△1.7	△1.0
건설업(Construction)	6.7	5.2	4.1	3.8
서비스생산산업	4.8	2.3	4.3	3.7
도매업(Wholesale Trade)	3.2	0.8	2.5	3.9
소매업(Retail Trade)	8.4	1.3	2.5	△2.1
운송저장업(Transportation&Storage)	4.0	2.3	6.7	5.4
숙박업(Accommodation)	0.5	12.1	14.9	4.3
요식업(F&B Services)	18.2	4.1	0.9	-2.3
정보통신업(I&C)	8.6	5.7	6.5	6.4
금융보험업(Finance&Insurance)	1.4	1.3	7.1	6.7
부동산(Real Estate)	14.1	4.9	0.4	-1.3
전문서비스업(Professional Services)	7.6	1.1	1.8	2.7
행정지원서비스업(Admin&support)	6.6	2.0	0.0	0.2
기타서비스업(Others)	5.2	4.4	4.1	2.5
전체	3.6	1.1	3.0	2.9

자료: MTI

• **(물가) 물가 상승 압박 완화, 연말까지 핵심 인플레이션을 2% 예상**

- 2024년 상반기 동안 인플레이션은 다소 둔화되는 추세를 보임. 이는 글로벌 공급망 회복 및 주요 원자재 가격 안정화의 영향으로 판단됨. 또한, 안정적인 통화 정책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됨
- 통화청(MAS), 올해 말까지 핵심 인플레이션을 약 2% 수준 하락 전망. 다만, 일부 국제 경제 요인 및 수요 회복에 따른 인플레이션 재확산 가능성에 대한 경계심은 유지 중(2024.10, Business Times)
- *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물가 안정, 중기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싱가포르 달러의 명목실효환율(S\$NEER) 정책 밴드의 상승 기조를 유지하면서, 밴드의 폭과 중심점을 변경하지 않기로 발표함

〈싱가포르 주요 카테고리별 인플레이션 (2024)〉

구분	'24.01	'24.02	'24.03	'24.04	'24.05	'24.06	'24.07	'24.08
CPI 전품목(CPI All Items)	2.9	3.4	2.7	2.7	3.1	2.4	2.4	2.2
MAS 근원인플레이션(MAS Core Inflation)	3.1	3.6	3.1	3.1	3.1	2.9	2.5	2.7
식품(Food)	3.3	3.8	3.0	2.8	2.8	2.8	2.7	2.7
서비스(Services)	3.3	4.2	3.9	3.5	3.6	3.4	2.9	3.3
소매 및 기타 상품(Retail & Other Goods)	1.4	1.2	0.7	1.6	1.5	0.5	0.3	0.4
전기 및 가스(Electricity & Gas)	5.3	5.2	4.8	7.6	6.9	6.9	6.6	6.6
민간운송(Private Transport)	2.9	1.4	-0.3	0.3	2.8	-0.7	0.9	-1.0
숙박(Accommodation)	2.1	3.9	3.7	3.5	3.4	3.3	3.1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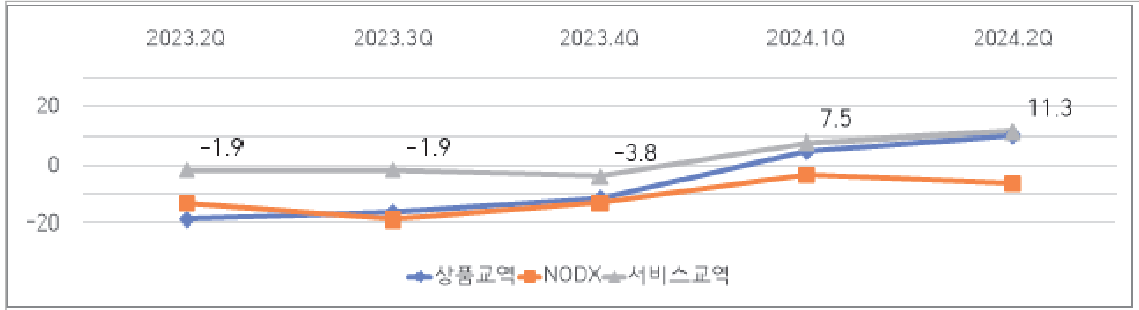
주: 전년 동기 대비 인플레이션
 자료: MAS 발표자료

• **(교역) 2024년 상반기 싱가포르의 전체 상품 교역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 기록(1분기: 4.8%, 2분기: 10.1%), * 유류 교역(1분기: 3.4%, 2분기: 16.9%), 비유류 교역(1분기: 5.2%, 2분기: 8.5%)**

- (상품교역) 2024년 2분기 동안 총 상품 교역은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했고, 이는 1분기의 4.8% 성장에 이어 소폭 성장한 수치임. 비석유 교역은 전년 동기 대비 8.5% 성장, 유류 교역은 16.9% 증가함. 비석유 국내 수출(NODX)은 △6.4%, 재수출(NORX) 11.9% 증가를 기록
- (서비스교역) 2024년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에 이어, 2분기 11.3% 성장
- (총교역) 전 세계 교역액은 1분기 232.64백만 미국 달러(전년 동기 대비 +4.19%), 2분기 236.07백만 미국 달러(전년 동기 대비 +8.88%), 전 세계 수출액은 1, 2분기 총 245.50백만 미국 달러(전년 동기 대비 +5.13%)로 전년 대비 증가(자료: GTA)

〈최근 1개년 상품 및 서비스교역 분기별 성장률 추이 (전년 동기 대비)〉

(단위: YOY %)



자료: MTI

• (고용) 실업률 감소, 고용 증가세 완만

- 싱가포르 노동부(MOM)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1H 2024) 전체 고용 수는 1.6만 명이 증가함. 이는 거주자 고용이 4,900명, 비거주자 고용이 1.1만 명 증가함을 의미. 노동 수요는 여전히 강세를 보이며, 2024년 2분기(2Q 2024)에는 고용 수가 1.1만 명 증가해, 2024년 1분기(1Q 2024)의 4,700명 증가보다 두 배 이상 증가를 기록함
- 즉 1분기 대비 2분기 전체 고용 증가율 129.4% 기록. 특히 금융 및 보험 서비스, 정보 및 통신, 전문 서비스 분야에서의 고용 증가가 두드러짐. 반면, 소매업 및 행정 및 지원 서비스 분야에서는 계절적인 영향으로 감소 기록

* 싱가포르 노동부(MOM)의 'Labour Market in 2Q 2024' 자료 참고

□ 2025년 싱가포르 경제 전망

• '24년 싱가포르 경제, 전년 대비 1% 성장한 2%대 성장 전망

- 싱가포르 통상산업부(MTI)는 주요 교역국의 경기 회복, 인플레이션 완화, 전자산업 회복 영향으로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1~3%)에서 2%대로 수정치 발표
- * 주요 기관별 GDP 성장률 전망치 : (IMF) +2.1%, (ADB) 2.4%
- 단, 싱가포르 정부는 미·중 양국 관계와 산업 생태계 변화, 지정학적 긴장 등 글로벌 이슈에 따른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언급함(2024.09, Straits Times)

• 2025년 경제 2% 내외로 성장 전망

- 블룸버그(Bloomberg), 로이터(Reuters), 2025년 싱가포르 경제성장률 2%로 예상,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2%로 물가 부담 완화될 것으로 기대

〈주요 경제기관 및 기구의 싱가포르 경제성장률 전망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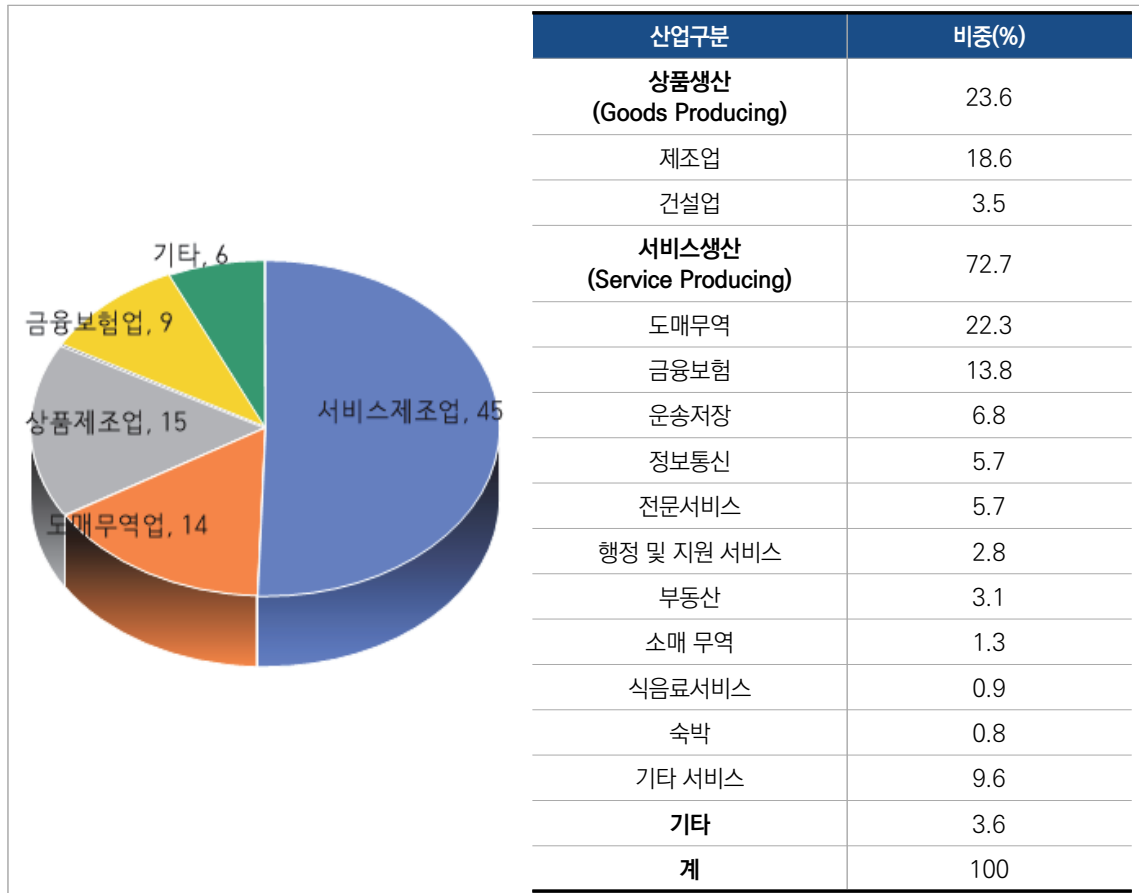
기관 분류		싱가포르 정부	국제기구	
전망	기관명	통상산업부(MTI)	IMF(발표시점)	ADB(발표시점)
	2024년	기존 전망치	1.0~3.0	2.1('24.07)
수정 전망치		2.0~3.0	2.1('24.10)	2.6('24.9)
2025년	전망치	-	2.7('24.10)	2.6('24.9)

자료: MTI, IMF, ADB

다. 산업 환경

□ 싱가포르 산업구조 개요

〈싱가포르 2023년 기준 산업구조 현황〉



□ 제조업

- (현황) '24년 상반기 제조업은 전반적으로 위축세를 기록. 생산성 높이기 위해 자동화, 기술 혁신에 집중. 반도체 및 전자 부품 전체 제조업 생산의 약 43.7% 차지

- '24년 1분기 제조업 성장률 전년 동기 대비 Δ 1.4% 기록, 일부 전문가 글로벌 공급망 문제 등 기술 수요의 변동성이 현지 전자 산업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함

- '24년 상반기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경기 개선과 위축을 오가는 혼조세를 보이며, 50을 기준으로 크게 벗어나지 않음. 5월 PMI 50.6으로, 전 달의 50.5에서 소폭 상승 기록

* PMI 수치는 50 미만이면 경기 위축, 50 이상이면 경기의 확장을 의미함

〈2024년 상반기 제조업 세부 부문별 Output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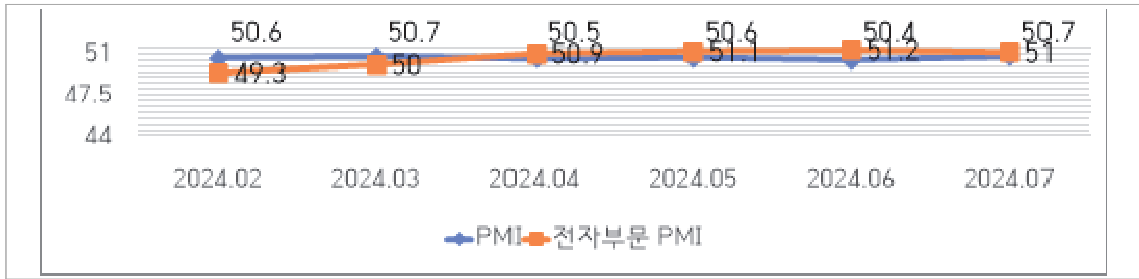
(단위: %(YoY))

산업 클러스터	비중	2024년 3분기			상반기 누계
		5월	6월	7월(추정)	1~7월
전자	47.8	18.6	-6.7	2.8	-0.3
- 반도체	41.4	18.8	-10.8	1.9	-1.6
- 컴퓨터 주변기기 및 데이터 스토리지	2.2	25.8	14.0	34.9	4.4
- 정보통신 및 가전부품	3.1	6.9	20.9	-6.6	14.0
- 기타전자 모듈 및 부품	1.1	30.2	8.5	6.1	8.0
화학	15.3	8.2	5.7	1.7	5.4
- 석유	5.5	29.4	7.3	-2.7	5.8
- 석유화학	4.8	4.2	3.8	8.6	7.9
- 특수제품	2.7	2.3	15.5	1.5	9.9
- 기타	2.2	-4.6	-2.0	-3.4	-5.0
바이오메디컬	11.0	-43.0	-22.3	-17.4	-23.5
정밀엔지니어링	14.1	-8.0	-2.4	0.7	1.4
운송엔지니어링	5.8	7.9	9.2	13.3	12.1
일반제조	6.0	-4.0	1.7	7.3	0.4
총 제조업	100	2.3	-4.3	1.8	1.8

주: 2024년 7월은 사전 추정치(2024년 10월 작성 시점 최근 자료)

자료: 싱가포르 경제개발위원회(EDB)

<2024년 PMI 추이>



자료: SIPMM, The Business Times, The Straits Times 종합

- (트렌드 및 전망) 친환경 및 지속 가능한 생산 방식에 대한 관심 증가 중, 자동화 및 IoT 기술, 인공지능(AI) 기술 제조업 접목 등 스마트 기기 수요 증가로 전자산업은 회복세 (2024.08, Enterprise Singapore)

- ① 지속가능성, 친환경 생산 주목 : 소비자와 기업 모두 친환경 제품, 지속 가능한 제조 방법에 대한 관심 증폭. 재활용 가능한 자재, 에너지 효율적인 생산 공정 도입으로 환경 영향 최소화 목표
- ② 자동화 및 IoT(사물인터넷) 기술 도입 증가 : 생산 공정 효율 개선, 데이터 분석을 통해 실시간 공정 모니터링 가능

<제조업 트렌드에 따른 정부의 관련 진행 프로젝트 정보>

프로젝트/정책	내용	관련 기술 및 목표	진행 현황
산업 변혁 지도 (Industry Transformation Maps(ITMs) 2025)	◆ 정부의 전략적 로드맵으로, 2025년까지 제조업 및 여러 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 목표	지속 가능한 생산을 위해 자동화 및 IoT 기술 제조업 내 도입. 효율성 증대, 고부가가치 회복 지원으로 새로운 제조업의 성장 기회 창출	전자, 정밀공학, 에너지·화학, 해양·해양산업, 항공우주 등 5개 제조업 분야에서의 자동화, 디지털 기술 도입 가속화 중 ('24.10.07)
싱가포르 녹색 계획 (Singapore Green Plan 2030)	◆ 지속 가능 제조업 촉진, 탄소 배출 감량 전략	탄소 배출 절감으로 에너지 효율성 증대, 친환경 기술 도입이 목표 (재활용 증가, 지속 가능한 재료 사용으로 환경적 영향 최소화)	'24년 3월, 중소기업을 위한 친환경 인증 프로그램 도입 (정부의 지원 범위 : 기업의 폐기물 감축, 자원 사용 최적화 및 온실가스 배출 지원)
순환 자원 사용 프로젝트 (Circular Economy Initiative)	◆ 자원의 순환 사용을 통해 환경 영향 최소화, 경제적 가치 창출 목표 이니셔티브. 제품 설계, 생산, 재활용 등 전 과정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는 시스템 구축	폐기물에서 원자재를 회수하는 기술을 사용해 제조업에서의 자원 낭비 감소, 재활용 및 재사용 비율 증가 목표.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지속 가능한 생산 방식으로 환경 보호	'23년 12월 기준, 현지제조업체의 약 30% 순환 경제 원칙 도입

자료: 싱가포르 경제개발위원회(EDB), MTI, Center for Liveable Cities

□ 건설업

• (현황) 정부의 정책 지원, 민간 부문의 투자 확대로 지속적인 회복세, 주택 및 인프라 프로젝트에 두드러진 성과 기대

- 2024년 건설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4.5% 증가가 예상되며, 건설 수요는 약 274억 싱가포르 달러 규모로 추정됨('23년 총 매출 : 약 262억 싱가포르 달러 추정, +4.5% 증가) (2024.08, MTI)
- 정부의 주택 정책에 따라 공공 주택 공급이 증가하며, '24년 총 2만 가구의 공공 주택이 공급될 예정,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한 수치
- (공공 부문) 스마트 시티 개발 추진으로, '24년 3월, 24억 싱가포르 달러 규모의 MRT 확장 프로젝트가 착공됨. 2025년 완공 예정
- (민간 부문) 민간 건설 수요는 약 194억 싱가포르 달러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8.3% 증가한 수치

〈2023년 세부 부문별 계약 수주 결과〉

(단위: 십억 싱가포르 달러)

구분	총계	공공	민간
전체	33.8	19.5	14.3
거주(Residential)	13.0	7.6	5.4
상업(Commercial)	3.4	0.0	3.4
산업(Industrial)	4.6	0.5	4.1
기관 및 기타(Institutional & Others)	5.5	4.8	0.6
토목 공학(Civil Engineering Works)	7.3	6.5	0.8

자료: EDB, BCA

• (전망 및 트렌드) 지속 가능성과 디지털 혁신으로 건설업 발전 가속화

- 2023년 기준, 디지털화와 지속 가능성을 중점으로 하는 트렌드의 지속으로, 스마트 빌딩 관리 시스템, 지속 가능한 건축 재료 사용, 자동화된 시공 방식 등 다양한 기술 적용 전망 언급(자료: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 2024년 기준, 싱가포르 전체 건설업 전년 대비 12% 성장 전망. 건설량은 320억~380억 싱가포르 달러 내외에 이를 것으로 언급됨. 정부 주도의 대형 프로젝트로 주도
- 현재 진행 중인 주요 프로젝트 : 창이공항 제5터미널, 투아스 항구, 풍골 스마트 타운, MRT Cross Island Line 구축 등

자료: Singapore Business Review, 싱가포르 건설청(BCA), 싱가포르 도시재개발청(URA), The Straits Times, Channel News Asia

□ 금융업

• (특징) 싱가포르, 글로벌 금융기관 다수 진출, 아시아의 금융 허브, 국제 금융의 중심지

- 글로벌 투자은행의 아시아 본부가 다수 자리 잡고 있으며, 현지 3대 은행(DBS, UOB, OCBC)이 금융 시스템의 핵심 역할을 수행 중
-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중앙은행 역할을 수행하며 통화정책, 금융 범죄 방지, 디지털 자산 규제, 결제 시스템 관리 등을 총괄
-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다양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신기술, 금융 서비스 테스트에 적극 지원하며 핀테크 개발을 적극 지원, 핀테크 스타트업이 혁신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 블록체인,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 관리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등록된 기업이 1,600개 이상으로 집계됨. 핀테크 인프라 제공업체는 18%(288개사), 결제 서비스는 31%(496개사) 비중을 차지(자료: The Wealth Mosaic 2024)
- 아시아의 녹색 금융 허브로, 지속 가능 금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가이드라인,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녹색 금융 프로젝트 활성화, 국제 금융 기관들과 협력해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투자 확대 중

• (전망) 싱가포르 금융산업 성장, 녹색 금융 허브 도약 목표, 디지털화·AI 도입에 따른 기술 발전 노력 지속 전망

-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Financial Services Industry Transformation Map 2025' 로드맵을 통해 금융 부문의 연평균 4~5% 성장, 매년 3천~4천여 개의 일자리 창출 목표 발표(자료: 싱가포르 통화청)
* Financial Services Industry Transformation Map 2025 : 국제적인 금융 허브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로드맵. 디지털 금융 인프라 발전, Netzero 전환, 금융 부문 인재 역량 강화 목표 포함
- 2030년까지 녹색 금융 허브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2025년까지 녹색 금융 상품의 규모를 1천억 싱가포르 달러로 확대할 계획. 이를 위해 녹색 채권 발행, 지속 가능한 투자 펀드 분야 집중 전망. 특히, 2030년까지 최대 350억 싱가포르 달러 규모의 녹색 채권 발행이 목표(자료: Ministry of Finance 2024)
- AI, 빅데이터 기술 발전에 힘입어, 금융 데이터 분석, 맞춤형 금융 서비스 제공 집중 전망. 통화청(MAS), *'금융 부문 기술 혁신(FSTI) 3.0'의 일환으로 AI 및 양자 기술 역량 강화 위해 1억 싱가포르 달러 투자 계획 발표(자료: The Business Times 2024)
* 금융 부문 기술 혁신(Financial Sector Technology and Innovation, FSTI) 3.0 : 통화청(MAS)이 주도하는 디지털 혁신 및 기술 발전을 위한 전략 로드맵으로, AI와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금융기관 역량 강화, 산업 혁신을 목표로 함

□ 소매 및 유통업

• (현황) 2023년 싱가포르 전체 소매 무역업, 고물가 및 소비자 수요의 약세로 성장세 둔화('23년 +1.3%, '22년 +8.4%, 전년('22) 대비 Δ 7.2%p)

- 2023년 소매 매출액은 약 35억 싱가포르 달러로, 이는 전년 대비 기준으로는 0.6% 증가를 의미. 의류 및 신발(+8.0%), 식품 및 주류(+19.8%), 화장품, 세면용품 및 의료용품(+3.8%), 자동차(+0.5%) 판매량이 증가

- 반면 슈퍼마켓 및 대형마트(△5.4%), 가구 및 가정용품(△5.6%), 주유소(△5.7%)는 판매량이 감소함
- 소매업의 영업이익은 2022년 기준 약 472억 싱가포르 달러, 매장수는 2.9만 개로 확인됨(자료: 싱가포르 통계청, MyCareersFuture Singapore)
- 싱가포르 인구의 구매력은 전 세계 3위(GDP per capita PPP, 2023)(자료: 국제통화기금2023)
 - * 1위 아일랜드(14,520 미국 달러), 2위 룩셈부르크(142,490 미국 달러), 3위 싱가포르(133,890 미국 달러) (자료: 국제통화기금 2023 세계경제지표)

〈2024년 8월 기준, 싱가포르 소매업 현황〉

(전년 동기 대비, 싱가포르 달러 기준)

지표	2023.08	2024.08	변화율(%)
소매 판매 지수	102.5	104.0	+1.5%
음식 및 음료 판매	2억 7천만	2억 8천만	+3.7%
의류 및 액세서리 판매	1억 2천만	1억 3천만	+8.3%
전자 및 컴퓨터 기기 판매	5천만	5천 5백만	+10.0%

주: 2024.8월 기준 최신자료
 자료: 싱가포르 통계청(SingStat)

• (특징) 오프라인 매출은 전체 소매 매출의 약 57.6%, 온라인 판매는 약 42.4%를 차지

- ① 오프라인 소매 시장 : 2023년 기준, 현지에서 운영 중인 해외 소매업체의 수는 1.8천여 곳 이상으로 추정되며, 패션, 전자 및 가전제품, 식품 및 음료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됨. 현지·글로벌 브랜드의 협업, 전시회, 판촉전 등 특별한 이벤트를 통해 현지 고객 유치를 활발히 진행 중(자료: Mordor Intelligence)

〈싱가포르 주요 오프라인 소매 매장 정보〉

쇼핑몰/매장명	주요 소매 활동 및 특징	해외 기업 진출 현황	위치
BHG 	패션, 뷰티, 라이프스타일 제품 제공. 다양한 국제 브랜드 입점	다수 글로벌 패션 브랜드와 협력, 현지 브랜드와 콜라보	Bugis, Jurong, Vivo City 등
Takashimaya 	일본계 백화점으로 명품, 생활용품, 식음료 등 다양한 상품군 보유	명품 브랜드 및 고급 일본 브랜드 다수 입점	Orchard Road, Ngee Ann C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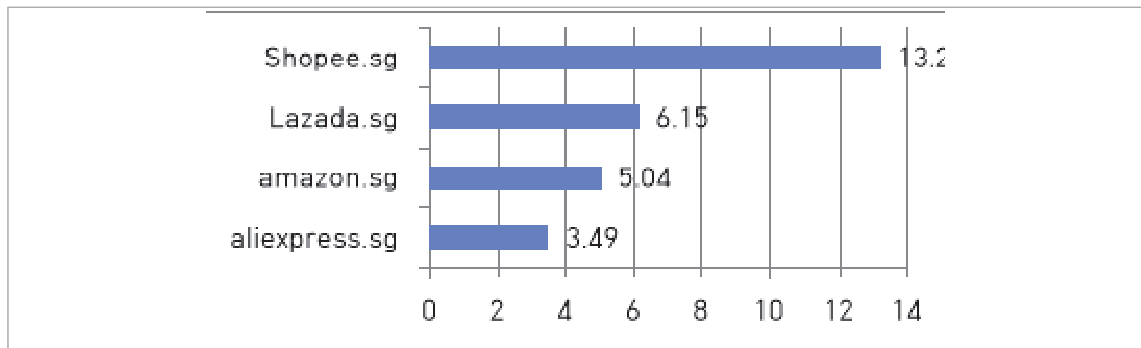
쇼핑몰/매장명	주요 소매 활동 및 특징	해외 기업 진출 현황	위치
ION Orchard 	번화가 및 관광지 중심에 위치하여 고급 브랜드, 럭셔리 패션 취급. 관광객 및 현지인에게 인기	Gucci, Louis Vuitton, Dior 등 국제적 브랜드 매장 위치	Orchard Road
Suntec City Mall 	400개 이상의 소매점 및 레스토랑 보유. 이벤트 공간, 컨벤션 센터도 함께 운영되고 있음. 다수 전시회 진행	다양한 국제 뷰티, 식품 브랜드 입점 (국내 브랜드 : 두끼 떡볶이, COMPOSE 커피 등)	Suntec City
Jewel Changi Airport 	공항과 연계된 복합 쇼핑몰로. 쇼핑, 다이닝, 엔터테인먼트 경험 제공	Apple, Nike, Adidas 등 글로벌 리테일러 다수 입점	Changi Airport

자료: 각 업체 공식 홈페이지

- ② 온라인 소매시장 : 2022년 기준 총 거래액은 82억 미국 달러를 달성했고, 2025년에는 110억 미국 달러의 규모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 컴퓨터 및 통신 장비(47.4%), 가구 및 가정용 기기(30%)는 온라인 판매의 주된 품목으로 점유율을 기록함
- Shopee, Lazada, Amazon, Aliexpress와 같은 이커머스 채널이 '24년 7월 기준, 월간 온라인 페이지 방문객 트래픽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자료: Statista, 'Leading e-commerce retail sites in Singapore as of July 2024, by monthly traffic')

〈싱가포르의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 월간 트래픽 ('24년 7월 기준 방문자 수)〉

(단위: 백만 명)



자료: Statista]

- 또, 'Global E-Commerce Trends Report Q1 2024'에 따르면, 싱가포르 소비자 60% 이상이 소셜미디어 플랫폼 중 'Tik Tok'을 쇼핑하기 선호하는 플랫폼으로 선택함. 신규 이커머스 채널로 Tik Tok(25%), Instagram(23%), Facebook(22%) 순으로 집계됨. 이는 전통 온라인 쇼핑 플랫폼은 아니지만, 짧은 영상을 통한 제품 홍보와 소비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제품 구매를 유도하는 새로운 이커머스 채널로 부상하고 있음을 시사함 ('24.03, Australian Fintech)

〈싱가포르 5대 이커머스 플랫폼〉

구분	 Shopee	 Lazada	 amazon	 AliExpress	 TikTok
회사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설립 • 다중채널 Cross-platform 운영 • 2017년 10월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 • SEA그룹 소속 플랫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년 설립 • 2014년 9월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 • Alibaba 소속 이커머스 플랫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4년 온라인 서점으로 시작해 1997년 아마존 마켓플레이스를 설립 • 새 상품 및 중고 상품을 판매하는 글로벌 플랫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 중국의 알리바바(Alibaba Group)에 의해 설립된 온라인 소매 플랫폼 • 2014년 9월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중국 바이트댄스(ByteDance)에 의해 설립된 소셜미디어 플랫폼 • 'Douyin'으로 최초 출시 • 2017년 글로벌 겨냥 'Tik Tok'으로 재출시
홈페이지	https://shopee.sg/	https://www.lazada.sg/	https://www.amazon.sg/	https://www.aliexpress.com	https://www.tiktok.com/tag/singapore?lang=en
진출국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대만, 태국, 브라질, 멕시코,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	전 세계	전 세계	전 세계
주요 취급 품목	화장품, 육아용품, 생활용품, 식품 등	디지털, 생활용품, 식품, 화장품 등	전자기기, 책, 운동기기 등	전자제품, 의류, 가전제품, 장난감, 뷰티 제품 등	패션, 뷰티, 식품, 가전, 가정용품 등

자료: 각 업체 공식 홈페이지

• (전망 및 트렌드) 모바일 쇼핑의 지속적인 증가와 옴니채널 전략의 강화

- 모바일 쇼핑 비율 증가로 이커머스 시장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됨
-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쇼핑 경험을 통합하는 '옴니채널 전략' 강화 전망. QR 코드 스캔을 통한 제품 간접 경험 및 AR 기술 활용으로 고객이 제품을 가상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등이 포함됨
- 2023년 3월 기준, 싱가포르 옴니채널 시장의 규모는 약 363억 싱가포르 달러로, 2025년까지 24% 이상의 성장이 예상되며, 전체 소매 지출의 57.6%가 옴니채널 형태로 이루어질 것으로 언급됨 ('23.06, Marketing Asia)
- 드론 배송, 자동화 물류 센터, 인공지능 기반의 재고 관리 시스템 등의 스마트 기술 도입 등 물류 및 공급망 혁신도 중요한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음(자료: Expert Market Research)

라. 정책·규제 환경

□ 싱가포르 산업 육성 및 글로벌 현안 대응 전략

• 국가 경제성장부터 글로벌 현안을 아우르는 10개년 목표

- 싱가포르 정부는 내수 성장을 위한 부문별 목표를 포함한 Economy 2030을 비롯해, 에너지 전환·지속가능성 실현·공급망 안정화 같은 글로벌 이슈에 대한 주요 전략도 점진적으로 발표

〈부문별 주요 전략 및 정책〉

영역	내용
경제 성장	• Economy 2030('22년 발표) : 무역, 기업, 제조 및 서비스 분야에서 싱가포르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고자 하는 세부 전략을 발표. 각각 Trade 2030(무역), Enterprise 2030(기업), Manufacturing 2030(제조), Services 2030(서비스)으로 분류됨
제조업 육성	• Manufacturing 2030(M 2030, '21년 발표) : 제조업 부가가치(value-add)를 50%까지 성장 • M2030 Career Initiative('22년 발표) : 제조기업들의 인재 유치 지원
교역 확대 및 공급망 안정	• Trade 2030('22년 발표) : 2030년까지 수출 1조 싱가포르 달러 및 역외무역 2조 미국 달러 달성 목표, 교역 다각화를 통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등
에너지 전환	• National Hydrogen Strategy('22년 발표) :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 탈탄소화 경로로 개발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가전략
도시개발	• LTMP2040('19년 발표) : 싱가포르 대중교통 발달을 위한 20개년 계획이며, 전철 노선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지속가능성	• Greenplan 2030('21년 발표) : 싱가포르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국가 아젠다로 2030년까지 목표를 설정, 2050년까지 넷제로 달성을 위한 전략을 포함함

자료: MTI, KOTRA 싱가포르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 글로벌 트렌드 관련 규제 동향

• (ESG①-환경(E)) 싱가포르 회계 및 기업 규제당국(ACRA), 증권거래소(SGX), 기후 공시 단계적 의무화 일정 및 세부적인 내용 확정('24.2)

- 싱가포르는 단계별 추진 방안에 따라 2025년부터 비상장기업에 대한 기후 관련 의무 공시를 시행하는 아시아 최초의 국가가 됨

- 싱가포르 기업청(ESG), 탄소 중립 및 기후 공시 의무화와 관련, 글로벌 ESG 평가기관인 CDP(Carbon Disclosure Project)와 협업하여 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정보공개 참여 시 관련 제반 비용의 70%를 ESG에서 지원, CDP는 기업 대상 일대일 자문 서비스 제공

• (ESG②-사회(S)) 싱가포르 통화청(MAS), ESG 등급 제공업체 행동 강령 제안(2023.06)

- 통화청은 ESG 등급 및 데이터 제공업체를 위한 업계 행동강령 공개 협의를 제안했으며, 이번 제안을 통해 방법론, 데이터소스, 거버넌스, 투명성에 대한 최신의 업계 표준을 확립할 것으로 기대

- 전 세계 규제 기관은 이러한 제공업체에 대한 규제 접근 방식을 개발하고 있으며, 통화청 역시 이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 공식화 전에 업계 규정 구현을 모니터링하고 글로벌 현안을 살펴볼 것으로 예상

• **(ESG③-지배구조(G)) 2024년 SGT, ACGS 지수, 싱가포르 지배구조 및 투명성 관행 중요한 평가 요소로 활용**

- 싱가포르 SGT¹에서 일반 부문 기업의 거버넌스 및 투명성 지수점수가 2024년 69.3점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

* The Singapore Governance and Transparency Index(SGTI)는 CPA Australia,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경영대학 거버넌스 및 지속가능성 센터(CGS), 싱가포르 이사협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싱가포르 지배구조 및 투명성 지수

- 아세안 내 상장 기업들의 거버넌스 관행을 평가하는 ACGS 지수, 싱가포르는 대부분의 평가 항목에서 ASEAN 상위 3위 안에 드는 것으로 나타남

* ASEAN Corporate Governance Scorecard(ACGS)는 이사회 구조, 책임성, 투명성 등 다양한 ESG 요소를 고려하여 각 기업의 지배구조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

• **(AI) AI 기술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모델 AI 프레임워크’ 발표**

- 싱가포르 정부는 AI 검증 및 테스트 툴킷 바탕으로 기업들이 AI 기술을 테스트하고 책임감 있게 사용하도록 장려

- 싱가포르 정보미디어개발청(IMDA), AI 거버넌스 테스트 프레임워크이자 소프트웨어 툴킷인 ‘AI Verify’를 2022년 발표. AI Verify는 기업들이 AI 기술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테스트 역할을 수행(IMDA)

* 미국 언론사 CNBC는 2023년 6월, “싱가포르는 AI를 규제할 생각이 없다”는 IMDA의 인터뷰를 보도

- 싱가포르 통신정보부, AI Verify Foundation이라는 재단을 출범(2023.06). 조직은 AI 사용을 위한 도구 개발과 전 세계 규제 기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AI 테스트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

- 싱가포르 통화청(MAS), 금융 부문의 생성형 AI(GenAI) 적용을 위한 프레임워크 개발 프로젝트(MindForge) 진행 중('23.11)

• **(할랄) 싱가포르는 다문화·다인종 국가로 특정 문화(할랄 등) 진흥을 위한 마스터플랜이나 육성 전략은 별도로 없으며, 할랄 인증이 필수 요소는 아님**

- 이슬람 문화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과 할랄 인증서 상호 인정 협정을 맺는 등 할랄 시장 수요에 대응하고 있음

* 이슬람은 싱가포르에서 세 번째로 큰 종교(비중 18%)

* 싱가포르 내 할랄 인증을 받은 음식점은 3,784개사(MUIS 인터뷰), 전체 음식점 중 할랄 음식점 비중은 4%로 추산

- 단, 다수의 무슬림 소비자 및 관광객에서 비롯된 할랄 시장 파생수요 등을 고려하여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 이어 2023년 UAE, 사우디아라비아와 연속하여 할랄 제품 상호 인정을 위한 MOU 협정을 체결

* '2023 글로벌 무슬림 여행 지수(Global Muslim Travel Index 2023, GMTI)'에서 싱가포르는 무슬림 관광객의 방문 국가 1위

2. 시장 분석

대외 개방형 경제를 중심으로 기업 친화적인 환경, 시장 다양성 등 장점을 갖고 있어 동남아시아 해외 진출을 위한 테스트베드로 평가됨. 다국적 글로벌 기업이 싱가포르를 본부로 활용하고 있으며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어 진입장벽이 낮으나 경쟁이 치열하므로 시장 분석이 필요함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 개방형 경제

- 도시국가 형태로 국토가 좁고 지하자원이 전무한 여건으로, 대외 개방형 경제 추구
 - 자유무역협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주류, 담배제품, 자동차 및 석유제품 외 모든 품목에 대해 무관세 정책 유지

□ 기업 친화적인 환경

- 싱가포르는 '아시아 비즈니스 중심지'를 목표로 하고 있어, 안정되고 일관된 정부 정책을 펼치는 親기업정책으로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며 국가 경제발전을 추구
- 17%의 낮은 법인세, 영어 공용화, 투명하고 빠른 행정절차, 공정한 사법제도, 탄탄한 사회 및 산업 인프라 등의 이점을 제공해 상당수의 다국적 글로벌 기업이 싱가포르를 동남아시아 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로 활용하고 있음

* 2024년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의 비즈니스 환경 순위에서 기업 경영하기 좋은 국가로 싱가포르 세계 1위 차지

□ 다문화 기반 시장 수요

- 다인종·다문화 국가로 이루어져 새로운 트렌드를 통해 동남아시아 진출을 염두에 두는 글로벌 기업들에게 적합한 테스트베드 시장으로서 활용 가능
 - 중국계(74.2%), 말레이계(13.7%), 인도계(8.9%) 및 기타(3.2%)로 구성되며, 영어, 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 등 4개 언어를 공용어로 지정
 - 불교(31.1%), 기독교(18.9%), 무교(20.0%), 이슬람교(15.6%), 도교(8.8%), 힌두교(5.0%), 기타(0.6%) 등 다양한 종교별 인구 구성비를 보임

□ 동남아시아 주요 허브 역할

• 물류 허브로서 아시아 연결 및 진출을 위한 요충지

- 싱가포르 항구, 월드뱅크가 139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물류성과지수(Logistics Performance Index, LPI)에서 4개 분야 1위를 차지

* 물류 서비스 품질, 무역 및 운송 관련 인프라, 국경 통제와 같은 요인들을 측정하는 지수

* 싱가포르는 핀란드,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권 국가들과의 평가에서 물류 서비스 품질, 관련 인프라 등 전체적인 지표에서 높은 평가를 받음

- 싱가포르 교통부, 해양항만청(Maritime and Port Authority of Singapore, MPA) 등 정부 발표 결과에 따르면, 싱가포르 항구는 2023년 12월 기준 연간 선박 도착량이 역대 최고치인 30억 톤을 기록('22년 대비 9.4% 증가 수치)

〈싱가포르 항만 및 항공 인프라〉

물류 인프라	특징
항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0개국, 600개 항구와 연결 • 싱가포르 항구 화물 처리량 : ('21) 37백만 TEU, ('22) 37백만 TEU, ('23) 39백만 TEU * 총 컨테이너 처리량 기준(자료: Singstat) • 차세대 항만을 목표로 '투아스 메가 포트(Tuas Port)' 건설 중(2040년 완공 목표)이며 완공 시 항만 처리량 65백만 TEU로 세계 최대 규모의 완전 자동화 통합 항만시설이 될 전망
항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이국제공항은 2019년부터 7년 연속 세계 최고 공항으로 꼽힘 • 연간 3백만 톤 화물 용량을 처리할 수 있으며, 7개 화물터미널로 구성된 항공 화물센터가 있음 • 창이국제공항은 현재 1~4터미널까지 운영, 제5터미널이 2030년 오픈 예정

자료: Singstat, MPA, PSA, MOT, KOTRA 싱가포르 무역관 보유자료

나. 교역

□ 싱가포르 수출입 동향

• 싱가포르 교역규모 지속 확대, 2024년 성장세 전년 대비 확장세 예상(GTA)

- 코로나19 이후 교역액 점진적으로 증가(2021년 +23%(YoY), 2022년 +15%(YoY))하며 규모는 확대되었으나, 2023년 하락세. 2024년 9월 누계 기준 진도율은 전년 동기 대비 7.18% 증가하여 전년 대비 수출입 추이 모두 확대 전망

〈최근 5개년 싱가포르의 수출입 추이〉

(단위: 백만 미국 달러)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1~9월)
총 교역액	703,338	862,834	990,095	897,809	632,794
수출	374,234	456,800	514,863	475,384	332,083
수입	329,104	406,034	475,232	422,425	300,712

자료: GTA

• 싱가포르의 교역 상위 3개국 : 중국(14%), 미국(11%), 말레이시아(11%)

- 2024년 기준 상위 10개국의 교역액 총합 중 상위 3개국의 비중이 50%이며 한국은 4개년 연속 7위권으로 전체 교역액의 5% 내외의 비중을 차지

순위	2021		2022		2023		2024(1~9월)	
	국가	교역액 (비중)	국가	교역액 (비중)	국가	교역액 (비중)	국가	교역액 (비중/교역 증감 률(YoY))
1	중국	122,159 (14.16)	중국	126,885 (12.8)	중국	124,337 (13.8)	중국	83,137 (13.1, △4.69)
2	말레이시아	95,743 (11.10)	말레이시아	110,912 (11.20)	미국	96,116 (10.7)	말레이시아	68,747 (10.9, △11.35)
3	미국	78,663 (9.12)	미국	96,229 (9.71)	말레이시아	92,076 (10.3)	미국	64,878 (10.3, △1.82)
4	대만	74,296 (8.61)	대만	82,818 (8.3)	대만	69,147 (7.7)	대만	55,265 (8.7, △24.48)
5	홍콩	63,312 (7.34)	홍콩	60,842 (6.1)	홍콩	52,589 (5.9)	홍콩	37,645 (5.9, △14.98)
6	인도네시아	43,950 (5.09)	인도네시아	55,361 (5.5)	인도네시아	51,366 (5.7)	인도네시아	37,181 (5.9, △9.41)
7	대한민국	41,821 (4.85)	대한민국	51,462 (5.1)	대한민국	46,321 (5.2)	대한민국	33,173 (5.2, △8.83)
8	일본	40,103 (4.65)	일본	47,489 (4.8)	일본	40,550 (4.5)	일본	25,367 (4.0, -5.57)
9	태국	25,389 (2.94)	태국	30,549 (3.0)	태국	31,113 (3.5)	태국	22,830 (3.6, △12.18)
10	호주	20,250 (2.35)	호주	25,122 (2.5)	호주	22,031 (2.5)	호주	16,200 (2.6, △13.6)

자료: GTA

□ 우리나라 주요 수출 품목 및 경쟁 동향

• 싱가포르의 對한국 주요 수입품목은 집적회로 반도체, 선박, 휘발유로 나타남

- 2023년 기준 싱가포르의 對한국 수입은 187억 미국 달러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고, 對한국 수출은 111억 미국 달러로 전년 대비 증가
- 2024년 기준 싱가포르의 對한국 수입 품목은 반도체, 선박, 휘발유 순서이며 한-싱 10대 품목 중 차지하는 비중은 29.4%, 21.9%, 19.5%로 70% 이상 수준

〈對싱가포르 교역 동향〉

(단위: 백만 미국 달러, 전년 대비 %)

연 도	수출		수입		총교역액		무역수지
	금 액	증감률	금 액	증감률	금 액	증감률	
2020년	9,828	-23.0	8,438	26.7	18,266	-6.0	1,390
2021년	14,149	44.0	10,691	26.7	24,840	36.0	3,458
2022년	20,205	42.8	10,348	-3.2	30,553	23.0	9,857
2023년	18,752	-7.2	11,179	8.0	29,931	-2.0	7,573
2024년 7월	10,835	-	5,993	-	16,828	-	4,842

자료: 한국무역협회

〈對싱가포르 10대 수출품목〉

(단위: 백만 미국 달러)

순위	품목명	금액
1	집적회로반도체	2,486
2	선박	1,856
3	휘발유	1,646
4	경유	790
5	제트유및등유	613
6	윤활유	225
7	반도체제조용장비부품	223
8	기타석유제품	219
9	나프타	214
10	반도체제조용장비	185
10대 품목 수출 합계		8,457

〈對싱가포르 10대 수입품목〉

(단위: 백만 미국 달러)

순위	품목명	금액
1	집적회로반도체	2,486
2	반도체제조용장비	185
3	중유	15
4	의약품	23
5	컴퓨터	18
6	기타정밀화학제품	41
7	실리콘웨이퍼	37
8	나프타	214
9	반도체제조용장비부품	223
10	기타유리제품	11
10대 품목 수입 합계		3,253

주: MTI 4단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 진입 장벽

• 싱가포르의 개방경제를 지향해 진입 장벽이 낮음

- 차량, 담배, 석유, 주류제품 외의 물품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고, 국제 기준 도입, 투명한 행정, 비관세 장벽으로 인해 애로사항도 거의 없는 편

* 4개 관세 적용 품목의 경우 종가세율 또는 특정요율을 기준으로 부과(세부 내용은 싱가포르 관세청 참고)

- 그러나 그만큼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이 진입해 있어 경쟁이 치열함

다. 투자

□ 싱가포르 외국인 투자 동향

• (개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 회복세

- UNCTAD에 따르면 2023년 싱가포르가 유치한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1,596억 달러로 전년 대비 13.14% 확대

- 글로벌 고금리 및 경기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하여 급감하였던 FDI가 지속 회복하였으며, 글로벌 비중도 지속 확대

〈싱가포르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입 추이〉

(단위: 백만 미국 달러)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싱가포르(B)	97,533	74,857	126,674	141,118	159,670
전세계(A)	1,729,239	984,578	1,621,808	1,355,749	1,331,813
비중(B/A)	5.64%	7.6%	7.81%	10.41%	11.99%

자료: UNCTAD(2024.6)

• (국가별) 최대 투자국은 미국으로 최근에도 투자가 활발

- 2022년 기준 외국인 투자유치액은 미국(574십억 싱가포르 달러), 케이만군도(297.50억 싱가포르 달러), 일본(177.70억 싱가포르 달러), 영국(138.60억 싱가포르 달러) 등으로 나타남

〈싱가포르의 주요 국가별 외국인 투자(FDI) 유입 추이〉

(단위: 십억 싱가포르 달러)

구분	2019	2020	2021	2022
미국	427.1	531.3	610.8	574.0
케이만군도	200.6	242.6	298.7	297.5
일본	131.1	139.8	157.2	177.7
버진군도	151.0	165.2	177.7	176.7
영국	101.9	125.6	114.5	138.6
버뮤다	103.5	105.4	127.6	127.7
한국	24.1	26.5	36.8	47.5

자료: 싱가포르 통계청(2024.5월 기준 최신 자료)

- (산업별) 금융 분야 투자가 꾸준히 이루어지는 가운데, 최근 제조업과 운송창고 분야 투자가 활발
 - 2022년 기준 산업별 외국인 투자유치액은 금융보험(1조 4,760억 싱가포르 달러), 운송창고(1조 1,230억 싱가포르 달러), 부동산(4,600억 싱가포르 달러), 정보통신(4,590억 싱가포르 달러) 등으로 나타남

〈싱가포르의 산업별 외국인 투자(FDI) 유입 추이〉

(단위: 십억 싱가포르 달러)

구분	2019	2020	2021	2022
금융보험	1,036.4	1,206.0	1,430.2	1,476.5
유통물류	280.6	317.7	360.3	411.1
제조업	241.4	254.0	290.8	323.1
운송창고	330.3	425.5	752.9	1,122.9
전문서비스	220.1	226.1	224.7	175.7
정보통신	301.8	318.1	401.0	458.8
부동산	465.7	466.7	458.8	460.4
숙박음식점	63.7	77.4	75.3	82.8
건설	80.8	69.6	71.2	69.2
기타	167.9	99.7	114.6	129.1

자료: 싱가포르 통계청(2024.5월 기준 최신 자료)

□ 외국인 투자 유치 관련 정책 및 인센티브

- 혁신 글로벌 기업 유치에 노력
 - 1965년 건국 이래 대외 개방과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을 지속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조속히 경제를 재개방하여 대응

- 첨단제조업(Manufacturing 2030), 금융업 혁신(Industry Transformation Map)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였으며, 관련 분야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지속 제공

• **외국 기업에도 동등하게 적용되는 투자 인센티브**

- 싱가포르의 투자 인센티브는 내국기업, 외국기업에 동등하게 적용되며, 싱가포르 내에서 법인세 납부 의무를 지닌 기업에게 동일한 조세, 고용상의 혜택을 지원
- (조세 감면) 싱가포르 정부가 지정한 성장 산업군 내 기업에 대해 투자금액, 고용 창출, 싱가포르 내 사업 지출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본 5년간 법인세를 면제 혹은 감면(5% 혹은 10% 적용)*
* 최대 15년간 적용되며 싱가포르의 기본 법인세율은 17%임
- (고용 지원) 싱가포르 정부가 지정한 급성장 산업군(Fast-Growing Industries) 내 기업에 대해 외국인 채용 규제 완화 및 고용비자를 지원
- (기타 지원) 싱가포르 정부가 지정한 첨단 제조 산업군 내 기업에 대해 제조설비 관련 지출 일부를 환급

□ **진출여건 및 진입장벽**

• **우수한 기업환경, 친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

- 싱가포르는 세계은행의 2020년 기업환경지수(Easy Doing Business)에서 2위를 차지하는 등 기업에 친화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음
- 싱가포르 개발청(EDB)에 따르면 주요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 지역본부의 46%가 싱가포르에 위치하고 있으며, 다양한 산업군에 걸쳐 글로벌 기업이 싱가포르에 진출

• **높은 소득 수준과 고물가, 강화되는 노동법**

- 높은 국민소득, 협소한 국토로 인한 자원의 높은 대외의존도와 개발 한계 등의 요인으로, 전반적으로 높은 물가 수준을 가지고 있어 현지 진출 시 유지비용이 높은 편
- * 싱가포르는 Mercer사가 발표하는 2024 Cost of Living City Survey에서 홍콩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생계비가 높은 도시로 선정 (3위는 취리히, 서울은 32위)

□ **투자 진출 성공사례**

• **지사 역할 지원을 통한 해외 첫 진출 사례**

- 한국에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는 A사는 첫 해외 진출 대상지로 동남아의 거점 싱가포르를 선정하고 KOTRA 싱가포르 무역관 지사화 기업으로 2023년 현지 1호점을 개점
- 이후 동남아 지역 유력 CVC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해당 CVC의 프랜차이즈 라인업으로 동남아시아 진출 확대 중

3. 한국과의 경제교류 및 주요 경험 의제

가. 교역

□ FTA 체결 현황

- 한·싱 자유무역협정(KSFTA)은 2006년 3월 발효되었으며,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AKFTA)은 2007년 6월 발효됨
- 2021년 12월, 양국은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Korea-Singapore Digital Partnership Agreement, KSDPA)' 협상 타결을 선언하고 공동성명에 서명함
 - 한국 입장에서는 최초의 디지털 통상 협정이며, 싱가포르 입장에서는 아시아 국가 중 한국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상호 의의가 있음
 - 디지털 시스템 간의 상호 운용성을 촉진하기 위해 미래 지향적인 디지털 무역 규칙과 규범을 수립함으로써 양국 간의 디지털 경제에서 양자 협력을 심화할 것으로 기대됨
- 한국은 2023년 6월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3국 간에 체결한 디지털무역협정인 DEPA(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의 1호 가입국이 되었음
 - 한국은 2021년 10월 가입 절차를 개시한 후 여섯 차례 협상을 거쳐 가입에 필요한 국내 법·제도 점검을 완료하고 '23년 내 발효를 목전에 두고 있음
 - DEPA를 토대로 아세안(싱가포르), 대양주(뉴질랜드), 중남미(칠레) 등 권역별 주요국에서 한국 기업의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 및 디지털 콘텐츠·서비스의 해외 진출 기회 확대될 전망
- 한국과 싱가포르 양국은 2024년 10월 8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을 통해 2025년까지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관계를 강화시키기로 합의
 - 전략적 파트너십은 양국이 경제, 국방, 디지털 경제, 인공지능(AI) 등의 핵심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두 정상은 회담을 통해 5개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범죄인 인도 조약에 서명함. 또한, 무역, 교육, 국방, 기후변화, 사이버 보안, 디지털 및 그린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짐
 -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KSFTA) 업그레이드 예정, 등 항공 서비스 협정을 확대해 여행 수요에 대응하고, 인적·물적 교류를 강화할 예정

□ 우리나라와의 교역 현황

• GTA에 따르면, 2023년 싱가포르의 對한국 교역액은 전년 대비 2% 감소함

- GDP 대비 교역액(수출+수입/GDP)이 228%에 달하는 무역 중심지로, 주요 교역국 경제성장 또는 글로벌 경제여건 변화(반도체 수요, 유가 변동 등 글로벌 시장 변화에 취약)에 동조화 경향
- 싱가포르의 수출 및 수입 상대국 1위 교역 파트너는 중국이며, 한국, 일본, 대만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와 대부분 거래하는 가운데 미국 또한 주요 수출입 파트너임

• 싱가포르는 한국의 7대 수출 상대국이며, 양국 주요 교역품목은 석유제품 및 반도체로 수출입 품목이 유사

- 전 세계 수출액 중 3% 비중으로 2년 연속 7위('22~'23년 연간, '24년 7월 기준 8위)
- '23년 양국 교역액은 7,573백만 미국 달러(수출 18,752, 수입 11,179)

□ 수출 성공 사례

- 밀키트로 기획요인 포착, KOTRA 지원을 통해 이슬람을 포함한 다문화 시장인 싱가포르를 타깃으로 할랄 시장에 진출, 선제적으로 대응 이후 중동 시장까지 확대 판매(對중동 시장 수출액 9만 미국 달러 이상 달성)

※ 연도별 해외 시장 진출 히스토리

- ('20) 서울푸드 화상상담회('20.05)를 통해 싱가포르 바이어와 온라인 상담을 진행, 시장성 파악
- ('21) KMF 할랄 인증·MUI 할랄 인증 취득
- ('22) KOTRA 무역사절단으로 싱가포르 및 두바이 방문, 현지 바이어 상담·샘플테스팅 등 진행
- ('24) 싱가포르 최대 식품박람회 FHA 참여해 전 세계 바이어와 상담 진행, OEM 제품 수출 임박

- 자율주행 분야 관련 스타트업, KOTRA 해외 전시회 한국관 지원으로 매년 유관 분야 전시회에 참가, 자율주행 합작법인 설립 및 정부 사업 수주 완료, 싱가포르 자율주행차 관련 테스트베드 사업으로 정책 수립 주도

※ 연도별 해외 시장 진출 히스토리

- ('23) 싱가포르 정보통신전시회('23.05)를 통해 전 세계 바이어와 상담을 진행, 해당 전시회에서 중동 최대 AI 기업과 미팅을 진행하여 글로벌 합작법인 설립 및 중동 시장 진출 성과
- ('24) 이듬해 다시 참가하여 추진 성과 강화, 싱가포르 정부 산하 기관과 공동 사업 지속

나. 투자 진출

□ 한국-싱가포르 투자 유치 현황

• (싱가포르의 한국 투자) 제4위 투자국. 혁신 분야 대한 투자 확대

- 싱가포르의 한국 투자금액은 2024년 1분기까지 누계 기준 331억 달러로 미국(1,098억 미국 달러), 일본(514억 미국 달러), 네덜란드(390억 미국 달러) 다음으로 많은 금액을 투자
- 한국 자산운용사가 조성한 펀드에 간접투자하거나 상업용 빌딩 등에 주로 투자해왔으며, 최근에는 데이터센터, 물류창고, 스타트업 등으로 투자 영역이 확대

• (한국의 싱가포르 투자) 제8위 투자 대상국. 동남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

- 한국의 싱가포르 투자금액은 2024년 1분기까지 누계 기준 263.8억 달러로, 미국(2,286억 미국 달러), 중국(938억 미국 달러), 케이만군도(718억 미국 달러), 베트남(371억 미국 달러), 홍콩(331억 미국 달러), 룩셈부르크(304억 미국 달러), 영국(265억 미국 달러) 다음으로 많은 금액을 투자
- 대기업 중심의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건설업의 비중이 컸으나, 최근에는 동남아 시장 진출 수요가 확대되면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진출도 확대

〈한국과 싱가포르의 상호 투자 유치 추이〉

(단위: 백만 미국 달러)

구분	'19	'20	'21	'22	'23	'24.1Q	누계
한국→싱가포르	3,480	3,866	2,515	3,058	1,262	314	26,380
싱가포르→한국	1,307	2,280	4,189	3,247	2,701	482	33,136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통계(신고기준),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

〈산업별 대상싱가포르 직접투자〉

(단위: 백만 미국 달러)

산업	'17	'18	'19	'20	'21	'22	'23	'24.Q1
금융보험업	355	953	1,334	969	570	577	414	101
도소매업	154	270	459	1,101	354	237	293	108
제조업	190	72	716	313	314	127	219	7
정보통신업	31	97	182	194	455	123	90	2
부동산업	118	25	401	874	263	345	74	69
운수 창고	76	118	64	94	12	185	49	1
전문, 과학 및 기술업	24	67	190	143	343	609	46	8
전기, 가스공급업	16	29	60	112	117	12	32	1
건설업	10	6	23	10	3	47	20	11

산업	'17	'18	'19	'20	'21	'22	'23	'24.Q1
사업시설 관리, 임대	7	6	2	1	70	36	10	1
광업	4	3	2	3	2	2	7	3
숙박 음식점	35	3	21	48	4	3	3	1
농림어업	12	3	4	2	-	3	2	-
예술스포츠여가	1	8	0	1	-	-	2	-
교육서비스	5	2	10	0	1	2	0	0
협회단체	1	0	-	-	-	0	0	-
수도하수폐기	-	-	-	-	-	750	-	-
보건업	1	1	11	2	8	0	-	-
관광레저업	-	-	-	-	-	-	-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다. 협력 유망 분야

□ 한국-싱가포르 협력 유망 분야

• (국가 간 협력 유망 분야) 양국 간 '공급망, 에너지, 첨단산업 부문 파트너십' 협력 기대

- 한-싱 정상회담('24.10, 싱가포르)에서 한국은 글로벌 물류·기술·에너지 허브인 싱가포르와 '공급망, 에너지, 첨단산업 부문' 협력을 약속하며 2025년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함으로써 상호 공조를 더욱 강화

* 「공급망 파트너십 약정(Supply Chain Partnership Arrangement, SCPA)」, 「LNG 분야 협력 MOU」, 「기술협력 MOU」 등 복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위한 3건의 약정 및 양해각서 체결(2024.10)

- 싱가포르는 아시아의 물류 허브이자 통상규범 선도국가로서, 미래 발전의 원동력이 될 한국의 첨단산업 제조 기술을 활용하여 양국의 강점이 결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MOU별 주요 내용〉

구분	세부내용
「공급망 파트너십 약정(SCPA)」	「공급망 파트너십 약정(Supply Chain Partnership Arrangement, SCPA)」은 한국이 양자 간에 체결한 첫 번째 공급망 파트너십 약정 양국은 공급망 교란 징후 포착 시 신속 통보하고 긴급회의를 개최하여, 대체 수급처 정보 제공, 신속 통관 등 상호지원을 하기로 약속
「LNG 분야 협력 MOU」	양국 간 LNG 스왑, 공동구매 등을 통해 국내 천연가스 수급을 안정화하고 LNG 도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기술협력 MOU」	미래차, AI, 재생에너지 등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공동 R&D를 추진하기로 합의

자료: 각 기관 홈페이지

• **(기업 차원의 협력 유망 분야) 모빌리티 제조, 차세대 에너지 시스템, 도시 인프라 건설 관련 협력**

- (B2G) 싱가포르 교통부는 자율주행, 전기차, 지속가능한 도시 교통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한국 자동차 제조 진출기업(H) 및 건설기업(G)과 싱가포르 교통부 및 육상 교통청과의 협력 수요 기대

* '24년 주싱가포르 한국 대사관 주최로 'Friends of Korea Day' 개최, 한국 진출기업 관계자-싱가포르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실무자 간 네트워킹 행사를 통해 발주처 인사와 교류

- (B2B) 혁신을 위한 플랫폼으로 AI, 친환경 기술 연구와 테스트를 위한 글로벌 기업 진출이 이어지고 있음

• **(공급망) 최근 반도체에서 바이오에 이르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강대국 간 무역 및 기술 경쟁 심화를 피하고자 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싱가포르 투자 급증, 글로벌 공급망 현안 대응 협력**

- (반도체) 싱가포르는 글로벌 반도체 회사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UMC, Siltronic 등)를 통해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첨단 제조 역량과 인적 교육에 투자하기 위해 민간 협력을 계속하는 등 전자 및 반도체 산업의 역량 강화를 도모

* 싱가포르에서 반도체 제조는 전자 제조 생산량의 80% 이상, GDP의 7% 이상을 기여하고 있음(MOS(Minister of State) 연설 중)

- (바이오) 글로벌 바이오 회사(Astra Zeneca, Pfizer 등)가 싱가포르에 신규 제조시설 설립 계획을 잇따라 발표 중에 있으며, 싱가포르 정부는 바이오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바이오폴리스와 같은 허브를 조성하여 연구기관, 기업, 스타트업 간 협력을 유도하고 바이오 전문 인재 양성에 투자하고 있음

* 싱가포르에서 바이오 임상 단계 회사 숫자 향후 10년간 2배 이상 증가 전망(SGIInnovative)

싱가포르는 비교적 작은 규모의 내수시장이라서 글로벌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하나 기업 친화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바탕으로 신산업 및 신기술의 테스트베드로 활용되고 있는 시장임. 여러 기회요인이 있어 이에 대한 이해와 전략 수립 필요

1. PEST 분석

<p>Political 정치정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 체제) 의원내각제 정치체제(4대 총리 신규 취임) • (법안 변화) 친환경을 위한 기후 공시 의무화, 공급망 안정화 및 다각화를 위한 국가 간 파트너십 체결 등 지속가능성 추구 • (세금, 노동법) 낮은 법인세와 유연한 노동정책으로 기업친화적 환경
<p>Economic 경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성장률(GDP growth)) 경제성장 안정적 확장세, '25년 기준 2%대 예상 •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압박 완화되나, 일부 국제 경제요인 및 수요 회복에 따른 인플레이션 재확산 가능성 존재
<p>Social 사회문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변화) 저조한 출산율 및 인구 고령화로 실버케어 이슈 • (소비자 라이프스타일) 온라인 구매 활성화 및 SNS에 기반한 신규 이커머스 채널 등장, 옴니채널 선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
<p>Technological 기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트렌드) AI 기반으로 산업의 디지털화 가속화, 자동화 및 AI 기반 서비스 확산, 전 산업의 지속가능성 추구에 따라 녹색경제 중요성 대두 • (혁신) 제조에서 서비스까지 로봇 활용 영역 확대, AI 접목한 스마트 헬스케어 도입, Foodtech 및 모빌리티 신산업 발달

2. SWOT 분석 및 전략 도출

강 점(Strength)

- 조선, 건설, 반도체 등 제조업 및 주력 산업 중심으로 탄탄한 현지 진출 기반 보유
- 미래 모빌리티, AI,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혁신·첨단 기술 경쟁력 보유
- K-브랜드 이미지를 활용한 프리미엄 소비재·유통·프랜차이즈 성공사례 보유
- 양국 간 활발한 교역, 경제 협력 관계

약 점(Weakness)

- 탈탄소, 개인정보, AI 프레임워크, 할랄 인증 등 현지 규제 및 시장 정보에 대한 이해 부족
- 글로벌 빅테크 경쟁기업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브랜드 파워가 약한 구조
- 비교적 작은 내수시장 규모 대비 높은 물가와 비싼 임대료 및 인건비

기 회(Opportunity)

- 한-싱 FTA 확대, 공급망 협정 체결 등으로 양국 간 협력 가능성 확장 및 강화
- 낮은 법인세, 투자 인센티브 등 기업친화적 환경으로 대·중소 및 스타트업 진출 가능
- 동남아시아 진출 허브이자 테스트베드로서 인근국과 진출 연계 가능
- 싱가포르 정부 주도의 강력한 혁신 정책, 프로젝트 수요 다대


위 험(Threat)

- 높은 대외의존도로 인하여 글로벌 경기 동향 및 물류 영향으로 인한 불확실성 존재
- 중국발 디플레이션 수출 등 현지 및 다국적 기업 확장 및 진출에 따른 경쟁 심화
- 기후변화, 친환경 에너지 등 지속가능성 이슈 관련 규제, 환경 변화 심화

전략방향	세부전략
SO 전략 (역량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기업 기술력 및 브랜드 신뢰도를 바탕으로, 싱가포르 정부 주도 프로젝트 적극 참여 • 양국 간 협력 기회를 포착하여 IT 데이터센터, 풍력 발전 인프라 등 주력 시장 타기팅
ST 전략 (강점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브랜드 이미지 활용하여 중국발 디플레 소비재 수출 등 경쟁 심화 극복 • 고비용 구조에 대해 구매력을 갖춘 소비자 대상 프리미엄 소비재, 프랜차이즈로 차별화
WO 전략 (기회 포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AI 규제 프레임워크에 사전 대비, 싱가포르 레퍼런스 활용 동남아 인근국 진출 확대 • 경쟁 심화 및 고비용 극복 관련, KSDPA 등 디지털 분야 국가 간 파트너십, 인센티브 적극 활용
WT 전략 (위험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적인 현지 시장 흐름 파악으로 탈탄소, 친환경 에너지 등 지속가능성 현안 극복 • 법률적 리스크에 대비하여 현지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규제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

진출전략
건설업, 조선 등 주력 산업 수출, 진출 확대 강화
프리미엄 소비재, 프랜차이즈 진출 집중 공략
동남아 Gateway로 AI, Tech 혁신기업 무역투자 복합 진출
적극적인 시장 흐름 파악으로 탈탄소, 친환경 수요 대응

3.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주력 산업 입지 확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 건설, 반도체 등 전통 산업을 중심으로 싱가포르에서의 입지 강화 - AI 산업 진흥을 위한 데이터센터 확장 등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와 같은 싱가포르 정부 주도 사업에 적극 참여 - 한-싱가포르 협력 확대를 통한 반도체 공급망 확대 및 조선기자재 수출 등 현지 진출 기회 모색
프리미엄 소비재, 프랜차이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브랜드의 신뢰도와 긍정적인 이미지를 활용하여 현지 시장에서 프리미엄 소비재, 프랜차이즈로 차별화 - 구매력을 보유한 소비자 계층을 대상으로 콜드체인 물류와 연계한 프리미엄 식품 소비재, 프랜차이즈 성공사례 확대 - 중국발 디스플레이션과 같은 글로벌 시장 경쟁 심화 속에서도 브랜드 가치로 차별화
AI, 테크 기반 혁신기업 동남아 진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싱가포르를 동남아 허브로 삼아 AI, 로봇, 미래 모빌리티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바탕으로 확장 - 정부의 강력한 혁신 정책을 활용해 AI, IoT,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참여, 무역투자 복합 지원 수요 고려 - 싱가포르 레퍼런스를 활용하여 인근 동남아 국가로 진출하는 전략적 발판 마련.
탈탄소, 친환경 등 지속가능성 수요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 및 친환경 에너지 수요 증가에 대응해 한국 기업의 친환경 기술 및 솔루션 제공 - 싱가포르의 지속가능성 정책과 맞춰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탈탄소 솔루션을 도입 - 국제 규제 및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현지 전문가와 협력하여 법적 리스크 관리
	
동남아 지역 물류 거점(Gateway) 및 소비 중심지(Test-bed)로서 싱가포르 역할을 활용하여 주력 산업 강화, 프리미엄 소비재 및 첨단 기술에 기반한 차별화 전략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 구축	

3-1. 주력 산업 입지 확대 강화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동남아 및 글로벌 물류 허브로서 제조 및 건설 부문 산업 지원, 복합적 발전 가능성 다대

* 싱가포르 정부는 지속적으로 인프라 개발에 투자하고 있어, 건설 및 도시 계획 프로젝트 참여 기회가 풍부, 인근국과의 공급망 구축 수요 활용 가능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건설 분야 기술 혁신 및 디지털화 진행

- 토목, 인프라 등 공공 부문 프로젝트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며, 민간 수요는 기존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측(싱가포르 건설청(BCA))

* '24년 총 건설 수요는 320억~380억 싱가포르 달러, 공공 부문 수요가 55% 비중일 것으로 전망. 공공 프로젝트에는 주택 건설 외에도 창이공항 터미널(T5), 항구 개발, 도로 배수 등 인프라 작업이 다수 포함

- 중국기업 경쟁 등으로 단순 건설보다는 프로젝트로 특화된 데이터 센터, 친환경 건물 설계와 같은 인프라-미래형 사업이 유망하며, 최근 빌딩 정보 모델링(BIM) 및 사물인터넷(IoT) 등 기술 혁신 또한 확대 추세

-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지속가능한 건축 및 개발이 중요한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으며, 관련하여 BCA Green Mark 인증과 같은 그린 빌딩 정책 주목할 필요

• 글로벌 해양 허브 싱가포르, 해양 플랜트 산업 발달해 관련 수요 꾸준

* '23년 국제 해운 센터 개발 지수(ISCD)에서 최고의 해양 중심지로 선정

- 싱가포르 제조업 중 '해양 및 오프쇼어 엔지니어링' 성장률 1위('23년 기준)이며, 해양 및 해양 엔지니어링(M&OE) 산업은 선박 수리, 조선, 해양 엔지니어링, 유전 장비 제조, 해양 공급 선박의 건조 및 용선 등에 대한 전 세계 수요에 서비스를 제공해왔음

* '23년 생산량 증가율(YoY) : 해양 및 오프쇼어 엔지니어링 +26%, 전체 제조업 △4.3% (자료: 싱가포르 경제개발위원회(EDB))

- 싱가포르 정부, 해양 탈탄소화 청사진(2022)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친환경 선박 및 해양 재생에너지 품목에 관심

• 글로벌 공급망 역할 강화를 위한 반도체 제조시설 유치 정책

- 반도체 경기 동향에 민감하며, 현지 전자제품 생산과도 직접적인 연관

* '23년 싱가포르 전자산업 생산량 전년 대비 3% 감소(반도체 2% 감소) (자료: EDB)

- 글로벌 반도체 회사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유치로 파트너십 구축, 공급망 확대 노력 중. 반도체 산업에

국한된 구체적인 인센티브 및 정책은 대외 공개된 바 없으나, 해당 분야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 확대 계획 반복적으로 언급

* 정부가 지정한 성장 산업군(Growing Industries) 분야 투자에 대해 세제 혜택 제도 존재하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싱가포르 경제개발청(EDB) 소관으로 TSMC의 웨이퍼 제조시설 건설 계획 관련 인센티브 제안한 바 있음(Digitimes Asia, '23)

- 반도체 분야를 포함한 첨단 제조 R&D 분야 인재 양성을 목표로 통상산업부(MTI)는 'M(Manufacturing) 2030 Career Initiative'를 발표('22)

* 싱가포르 반도체협회(SSIA)는 반도체 기업과의 멘토링 프로그램, 산학 연계 프로그램 등 전문 인력 육성 지원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미래형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에 주목, 친환경 건축 및 혁신 기술 활용

- 에너지 효율화 및 탄소 저감이 가능한 친환경 건축 자재, BIM, IoT 기반 스마트 건설 기술, 도로 건설 및 배수 시스템 등 인프라 관련 기술 장비 등

• 해양 탈탄소화 계획에 맞춘 친환경 선박 기술 강화

- 친환경 선박 부품, 해양 재생에너지 설비 등

* 선박 평형수 처리장치(선박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주입, 배출되는 평형수 내의 미생물을 살균 처리하여 해양 생태계를 보호), 선박용 탄소 포집 저장 장치(해양 산업의 탈탄소화를 위한 탄소 저감 장치)

* 해상 풍력 발전 시스템, 해양 태양광 패널 등

• 첨단 반도체 제조시설 및 전자산업 생산에 필요한 장비, 공정 시스템

- 생산시설 장비 공급, 첨단 제조 R&D 솔루션 등

3-2. 프리미엄 소비재, 프랜차이즈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동남아에서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로 고급 소비재 수요 증가가 프리미엄 시장을 견인, F&B 프랜차이즈 괄목할 성장
* 건강, 웰빙,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소비자 니즈와 더불어, 높은 구매력을 활용하여 K-브랜드 프리미엄 이미지로 고소득층 타기팅 가능.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개인 맞춤형 제품 출시, 기술 기반 제품 등장 등 소비재 다양한 변화 중

- 싱가포르 내 브랜드 지지도와 충성도 향상에는 '개인화'가 주요 요소로 꼽힘(자료: KPMG 2022 고객 경험 우수 보고서)
- 싱가포르 소비자 주요 3대 특징*으로 '웰니스'가 선정되었으며, 건강뿐 아니라 기술을 바탕으로 대체식품 개발, 비건 식품 및 화장품 출시까지 제품 라인 다양화
- * '경험 중시하는(experience seeking)', '신중한(cautious)', '웰빙에 중점을 둔(wellness focused)' 소비자(자료: KPMG 2022 고객 경험 우수 보고서)

• 콜드체인 및 비건 푸드와 관련된 프리미엄 소비재 수요 증가

- 대규모 유통업체 및 프리미엄 브랜드 중심으로 고급 식품 및 건강식품 안전 유통 콜드체인 서비스 전문화 추세, 최종 소비자 직배송 서비스 활성화
- 지속가능한 식품 시스템 구축, 건강·환경보호·동물복지를 고려한 푸드테크 기반의 편의식품과 비건 레스토랑 증가

• 요식업 프랜차이즈 중심 혁신 비즈니스 모델 대두

- 한류가 동남아를 비롯한 전 세계에서 유력한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으면서 요식업을 중심으로 한국 프랜차이즈에 대한 관심과 선호도 지속 확대
- 싱가포르는 프랜차이즈 사업과 관련해 공개 및 등록 의무가 없어, 시장 진입이 용이하며, 기업환경이 우수한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동남아·대양주, 나아가 인도 진출을 위한 발판 내지는 전진기지로도 활용 가능
- * 일부 기업들은 지역 투자자들의 투자를 이끌어내고 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시장을 확대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프리미엄 개인 맞춤형 제품, 친환경 콜드체인 시스템, 프랜차이즈 시장 주목

- 디지털 기술을 통해 개인화된 맞춤형 솔루션을 제안하는 앱이나 서비스를 도입
- 지속가능한 친환경 포장재 등 강조한 비건 뷰티 제품, 콜드체인 활용 유기농 농수산물, 현지 특화 프랜차이즈 진출로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 등

3-3. AI, 테크 기반 혁신 기업 동남아 진출 확대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싱가포르의 스마트네이션 이니셔티브를 통해 AI, IoT, 빅데이터 등 기술 혁신에 집중

* AI 및 테크 기반 기업들이 싱가포르를 테스트베드로 활용하여 동남아 전제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싱가포르 정부의 AI 도입 현황 및 목표

- Statista의 2022년 '전 세계 국가별 정부의 AI 인공지능 기술 도입 순위'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전 세계 2위로 100점 만점 중 84.12점 기록

* 의료, 교육, 교통 등 여러 분야에 AI 기술이 사용되고 있는 기준으로 평가

- 정부의 '스마트네이션(Smart Nation)' 비전은 기술 채택뿐만 아니라 ICT 도구의 구현과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우선시해 2030년까지 AI 분야의 글로벌 리더가 되는 것이 목표

- 글로벌 기술기업(Google, Facebook, Alibaba) 및 동남아시아 기반 플랫폼 기업(Lazada, Grab)이 진출해 있으며 기술 기업과 금융·서비스·제조산업 제휴 통한 솔루션 개발, 클라우드 기술 기업 투자(Alicloud, Google Cloud), 4천 개 이상의 테크 스타트업 보유 등 첨단기술과 솔루션 개발을 위해 선도기업과 협력해 ICT 생태계를 구축(자료: EDB)

• AI 로봇 도입에 따라 로봇 부품 시장 및 기술 진출 기대

- 로봇 자동화 소프트웨어 관련 기술, 로봇 제작에 필요한 센서, 컴퓨팅 리소스, 개발 보드 및 마이크로 컨트롤러와 같은 기술 및 부품을 제작하는 기업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

- 인간과 같은 작업 공간에서 일하도록 설계된 로봇을 의미하는 '코봇(COBOT)'을 비롯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전산업에 걸쳐 활용하고 있어 다양한 산업의 활용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싱가포르 병원 스마트 기술 적용 추세에 따라 스마트 의료 기술 진출 주목

- 싱가포르 단독생 병원(TTSH, Tan Tock Seng Hospital) : 스마트 병동팀은 디지털화, 로봇공학 및 인공지능을 활용해 고령 환자 돌봄 시스템 및 여러 스마트 기술 도입

- 싱가포르 보건부,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 통합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인 DMHC(Digital Mental Health Connect) 구축 중이며, 이를 통해 치료에 대한 데이터 통합과 공유를 촉진할 예정

* DMHC는 싱가포르 국가 차원의 건강관리 프로젝트의 일부로, 이를 위한 데이터 공유 및 IT 플랫폼 지원, 기술평가 프레임워크도 개발 및 구축될 예정

- **스마트 모빌리티 및 자율주행 기술**

- 자율주행차와 교통 데이터 분석, 그리고 연계된 스마트 교통 인프라 솔루션은 교통 체증 및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음. 또한 모빌리티의 서비스화(MaaS; Mobility as a Service) 개념이 활성화됨에 따라 모빌리티 통합 플랫폼, 차량 내 센서 및 AI 기술, 데이터 기반 이동성 관리 시스템 등이 주목받고 있음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싱가포르를 동남아 진출 허브로 삼아, AI 기반 자율주행차 및 스마트 모빌리티 시스템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유망 기술 수요에 대응**

- 자율주행차 관련 센서, AI 소프트웨어, 교통 데이터 분석 솔루션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배터리 관리 시스템, 전기차 부품 등
- AI, IoT,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참여, 무역투자 복합 지원 수요 고려, 추후 인근 동남아 국가로 진출하는 전략적 발판 마련

- **산업용 로봇 및 혁신 기술을 활용한 자동화 및 센서 기술, 스마트 의료기술 및 데이터 플랫폼 등 정부 차원의 혁신 정책에 관심**

- 협동 로봇(Cobot) 부품, AI 기반 로봇 제어 소프트웨어, 자동화 시스템 등
- AI 기반 의료 진단 솔루션,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정신건강 데이터 통합 시스템 등

3-4. 탈탄소, 친환경 등 지속가능성 수요 대응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 싱가포르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기술에 대한 투자, 지원 활발
- * 정책적 목표에 맞추어 탈탄소 및 친환경 기술을 상용화하고 기술력 및 시장성을 실질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이상적인 환경 제공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글로벌 에너지 전환이 촉구되면서 재생 가능 에너지 연료 공급망 확보가 주요 이슈로 대두**
 -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장관, 재생 가능 연료에 대한 새로운 무역 흐름 확보가 핵심 목표라고 언급했으며, 싱가포르가 에너지 부문 및 탄소 무역 관련 서비스 분야의 주요 무역 허브로서 진전을 이루었다고 언급함(2023.09)
 - * 싱가포르 정부,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구와 협력해 2027년까지 '녹색 및 디지털 해양 운송 회랑' 구축 계획,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롱비치 항구와의 협력을 통해 친환경 해양 연료 사용하는 선박의 교류 장려(2023.05)
 - 싱가포르는 해양 벙커링 허브로서 친환경 벙커유에 대한 글로벌 수요에 주목하며 공급망 변화에 대응하고 있음. 벙커유 대체재로 LNG가 주목받고 있어 LNG 벙커링 인프라 투자도 계속됨
 - 해양항만청(Maritime Port Authority, MPA)은 바이오연료, 암모니아, 수소와 같은 청정 연료 사용을 촉구함(MPA), 현재까지 90개 이상의 바이오연료 벙커링 작업을 통해 14만 톤 이상의 바이오연료 혼합물이 공급되었음(2023.09, MTI)
 - * 싱가포르는 세계 3대 석유 거래 및 정제 허브 중 하나로 선정, 연간 평균 4,500만 톤이 거래되며 이는 전 세계 판매량의 15% 비중(2021년 발표 기준, ITA)
 - * 싱가포르 벙커 연료 시장은 2030년까지 24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자료: Alliedmarketresearch), 싱가포르에는 세계 10대 글로벌 에너지 트레이딩 업체를 포함해 총 60개의 LNG 거래처 활동 중(자료: The Straits Times)
- **지속가능한 에너지원 개발과 수입원 확대**
 - 싱가포르는 2050년까지 순배출 제로를 달성하고자 하며, 탈탄소화에 대한 글로벌 노력이 촉구되면서 친환경 에너지원 개발과 수입 다각화가 에너지 안보의 한 축이 됨
 - 싱가포르 통상산업부(MTI)는 기존 연료가 완전히 대체되기 전까지 수소와 같은 탈탄소 연료로 천연가스가 저탄소 에너지원 역할을 할 것이라며 중요성을 언급
 - 싱가포르 정부, 태양열 에너지를 2030년까지 최소 2기가와트 생산하기 위해 태양광 배치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해 탈탄소화 경로로 개발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가 전략인 'National Hydrogen Strategy'를 발표(2022.10)
 - 청정 에너지 분야의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싱가포르 전력시장청(Energy Market

Authority, EMA)은 인큐베이션 프로그램과 자금 지원을 마련, Shell과 같은 에너지 회사와 파트너십을 구축. 이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한 스타트업 기업은 태양광 패널의 에너지 생성 극대화 및 스마트 재활용 공장 관리 시스템 개발

- 말레이시아로부터 상업적 전력 수입(100MW) 위한 공동합의 발표(2023.01), 라오스 재생가능 에너지 수입 예정, 호주 태양에너지 공급 프로젝트 개발 발표 등 에너지 수입원 다각화
- 현재 싱가포르 남부 해양 지역의 재생에너지 개발을 목표로, 'Pulu Satumu'에 해상 재생에너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음. 국내 태양광 발전 용량 확대 및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의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인 Sembcorp 시스템을 활용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보장 전망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기후변화 및 친환경 에너지 수요 증가에 대응해 한국 기업의 친환경 기술 및 솔루션을 유망 품목으로 활용하여 현지 기회 요인 포착**
 - 태양광 및 수소 에너지 관련 장비 및 솔루션(태양광 패널 효율 극대화 기술, 수소 연료 생산 및 저장 기술, 청정 에너지 관리 시스템 등)
 - 탄소 포집 및 활용 기술(Carbon Capture, Utilisation and Storage, CCUS)
- **싱가포르의 지속가능성 정책 및 국제 규제 및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현지 전문가와 협력하여 법적 리스크 관리에 유념**
 - 스마트 재활용 공장 관리 시스템, 청정 에너지 효율성 개선 솔루션, 에너지 효율 제품 및 서비스 등 친환경 산업 혁신 솔루션 시장에 주목

첨부 1

수출 유망 품목 (상품)

품목명 1		
의약품, 의료기기	선정사유	고령화 사회로의 변화, 소비자 건강 관리 수요 증가로 인해 연평균 성장률 (CAGR 2023~2028) 6.3% 성장 전망(Fitch Solutions). 싱가포르 정부, 바이오헬스 산업 지원, 다양한 연구개발 및 인프라 투자 적극 지원 중
	시장동향	2023년 기준, 의약품 시장 매출은 약 16억 미국 달러를 기록함. 생물 의약품 및 맞춤형 의약품 수요 증가 추세. 현지 의료 기기 시장 매출은 약 10억 미국 달러 기록
	경쟁동향	현지 및 글로벌 바이오 기업 다수 진출로 다국적 기업과의 경쟁이 치열함. 차별화와 혁신 기술을 반영한 고품질 제품이 선호되는 추세
	진출방안	철저한 관련 품목의 규제 검토, 현지 기업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인증 절차를 적절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
품목명 2		
선박부품	선정사유	싱가포르 해양 및 해양 엔지니어링(M&OE) 산업은 선박 수리, 조선, 해양 엔지니어링, 유전 장비 제조, 해양 공급 선박의 건조 및 용선 등에 대한 전 세계 수요에 서비스를 제공해왔음
	시장동향	싱가포르 해양산업협회(Association of Singapore Marine Industries)에 등록되어 있는 조선소는 총 22개 정도로 나타남
	경쟁동향	가스 추진 엔진은 선두 주자인 MAN B&W사와 Wartsila사의 엔진이 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선박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서 유럽산과 일본 브랜드 제품으로 시장의 양분화가 진행
	진출방안	KOTRA 한국관 전시 부스 참가, 사절단 등 지원사업 참가를 통해 전 세계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마케팅 및 네트워킹 기회 확보 추천
품목명 3		
반도체	선정사유	반도체는 글로벌 시장에서 주요 산업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국가의 반도체 공급망 확보를 위한 협력과 투자 유치 등이 계속됨
	시장동향	싱가포르의 '21년 전 세계 수입품목 중 1순위는 전자집적회로(HS 8542)로 집계됨(GTA)
	경쟁동향	2021년 기준, 싱가포르가 전자집적회로(HS 8542)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로는 대만(점유율 45%)이 1위를 차지했으며 말레이시아(16%), 대한민국(14%) 순으로 나타났음(GTA)
	진출방안	글로벌 반도체 기업 진출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싱가포르 반도체 및 ICT 관련 전시회 등 참관하며 진출방안 모색 필요

품목명 4		
스마트 기기 및 부품	선정사유	스마트 기기 및 부품은 싱가포르 시장에서 기술 발전과 디지털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 웨어러블 기기, IoT 기반 제품, AI 기반 디바이스 등이 빠르게 확산
	시장동향	싱가포르 정부는 2030년까지 AI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스마트 기기와 부품 시장을 적극적으로 지원
	경쟁동향	글로벌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미국, 중국, 일본, 유럽의 대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함
	진출방안	싱가포르 정부의 디지털화 정책에 맞추어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혁신기업의 진출 지원 필요. KOTRA의 해외전시회 연계 융복합 사업 등 무역투자 복합 진출 기회를 활용하여 마케팅 및 VC/AC 네트워킹 동시 확보 추천
품목명 5		
대체육	선정사유	싱가포르 식물성 대체육 시장 규모는 2022년 110만 싱가포르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6년까지도 식물성 대체육 시장 규모는 연평균 성장률이 6.7%로 예상(유로모니터)
	시장동향	싱가포르의 식물성 대체육 시장은 2021년 기준 90만 싱가포르 달러를 기록(유로모니터)
	경쟁동향	현지 유통망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식물성 대체육의 대표적 브랜드로는 퀴른(Quorn), 비온드 미트(Beyond Meat), 임파서블 푸드(Impossible Foods) 등이 있음
	진출방안	싱가포르 식품청은 식품 안전 및 식량 보안 감독 기관으로서 식품 관련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으며, 식품의 수입·유통은 싱가포르 식품청의 관할 하에 규제하고 있음. 현지 규제나 방침을 확인하고 시장 진출 방안을 모색해야 함
품목명 6		
프리미엄 과일	선정사유	과일을 비롯한 싱가포르 식자재는 해외에서 주로 수입. 국토 면적 제한상 식자재 대외 의존도가 90%임
	시장동향	특히 딸기는 동남아 열대기후상 재배가 쉽지 않아 희소성이 있으며 높은 당도를 바탕으로 최근 5년간 싱가포르 딸기 수입 국가 중 한국이 1위를 차지함
	경쟁동향	전체 신선 딸기 수입액 중 한국의 비중은 32%로 가장 높으며 미국이 유사한 비중으로 2위, 호주가 그 뒤를 이음
	진출방안	신선과일 특성상 수출 시 품질의 안정성을 고려해야 하며, 고품질과 물량 적기 공급, 신제품 개발 등으로 현지 유통 채널을 확대해 나가는 것도 방법으로 고려

품목명 7		
소스	선정사유	아시아에서 가장 성장잠재력이 큰 시장. 소비자들의 품질과 다양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뚜렷함. 다수 한국 기업 소스 진출
	시장동향	'23년 기준, 이 시장은 약 6억 8천만 싱가포르 달러의 매출을 기록함. '24년 기준 매출 약 10억 미국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연평균 성장률(CAGR 2024~2029)은 8.93%에 달할 것으로 전망
	경쟁동향	Lee Kum Kee(홍콩), Mamak(말레이시아) 등 다양한 브랜드가 시장에 진입해 있으며, 다국적 글로벌 기업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유기농, 저염, 또는 수제 방식으로 제조된 제품 판매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
	진출방안	소스 관련 식품 규제 면밀히 검토 필요, 환경을 고려한 포장재 사용 및 지속 가능한 생산 방식 도입은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줄 수 있음
품목명 8		
반려동물 용품	선정사유	코로나19 이후 반려동물 입양 가정이 증가했으며, 싱가포르 반려동물 수는 2022년 기준 843천 마리로 집계됨(유로모니터)
	시장동향	반려동물 사료 시장 규모는 2022년 기준 1억 7,260만 싱가포르 달러로 향후 5년 동안 5%대 성장률(CAGR)로 전망됨(유로모니터)
	경쟁동향	Mars Inc, Nestle Purina 등 미국 브랜드를 비롯한 다양한 브랜드들이 진출. 고품질 성분과 맞춤형 영양 성분 등을 강점으로 내세움
	진출방안	반려동물에게 사람과 비슷한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는 '펫 휴머니제이션'을 고려한 프리미엄 품질을 바탕으로 진출해볼 수 있음
품목명 9		
간편식	선정사유	싱가포르 간편조리식품 시장 규모 향후 2027년까지 2%(CAGR 2022~2027) 성장률 보일 것으로 전망(유로모니터)
	시장동향	싱가포르 간편조리식품 시장 규모 2022년 4,930만 달러이며 상온 보관용 간편조리식품 판매액이 3,530만 달러를 기록함
	경쟁동향	현지 브랜드(Narcissus, Yeo's 등)를 비롯한 여러 브랜드(Maggi, CP, Bibigo, Gulong 등)가 진출함
	진출방안	싱가포르 정부는 저나트륨, 저설탕 등 건강을 염두한 식품 섭취를 권고하고 있음. 건강에 초점을 둔 제품 진출을 고려해볼 수 있음
품목명 10		
뷰티 제품 및 디바이스	선정사유	한국산 뷰티 관련 제품은 높은 품질과 혁신성으로 싱가포르 시장에서의 인기가 꾸준한 편임. 특히 스킨케어 제품의 인기가 높음. 관련 한국 브랜드 다수 진출(예: 이니스프리, 정샘물, 에뛰드 하유스, 더페이스샵 등)
	시장동향	'24년 기준 뷰티 및 개인 케어 제품 시장 매출은 약 24억 싱가포르 달러로 추정됨. 온라인 판매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소셜 미디어를 통한 마케팅, 직접 소비자 판매 전략(D2C) 모델이 주목받고 있음
	경쟁동향	글로벌 브랜드와 현지 브랜드의 경쟁이 심함. 유기농 및 천연 성분을 사용한 뷰티 제품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
	진출방안	싱가포르의 뷰티 제품 규제 준수, 필요시 현지 인증 절차를 진행해 시장 진입장벽 낮추는 것이 중요. 현지 유통업체와의 협력을 통한 진출을 고려해볼 수 있음. 온라인 플랫폼, 소셜 미디어 활용해 마케팅 전략 강화

품목명 1		
(건설) 친환경 프로젝트	선정사유	• 탄소 저감에 대한 글로벌 이슈 및 싱가포르 정부 주도 하에 저탄소 실현 촉구
	시장동향	• 싱가포르 내 녹색차량 도입이 가속화되면서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친환경적인 건물 설계가 촉구되고 있음
	경쟁동향	• 최근 전기차 충전시설 건설 입찰에 여러 현지 기업이 성공하였으며, 향후 정부 주도 공공 입찰에 주목 필요
	진출방안	• 친환경 중심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중요
품목명 2		
(서비스) 프랜차이즈	선정사유	• 다문화 사회인 싱가포르는 높은 구매력을 기반으로 프리미엄 식문화에 대한 수요 다대
	시장동향	• 싱가포르 정부는 외국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및 세금 혜택도 존재
	경쟁동향	• 다양한 로컬 및 글로벌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경쟁하는 구도이나, K-푸드를 중심으로 한국 요식업 브랜드에 대한 인기 활발
	진출방안	• 매장 운영,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 등 싱가포르 진출 성공 사례를 레퍼런스로 활용하여 동남아 인근국 진출 기회로 활용
품목명 3		
(디지털) IT 솔루션	선정사유	• AI, 반도체에 기반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IT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급증. 특히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데이터 분석, 사이버 보안 서비스 등이 중요
	시장동향	• IT 솔루션은 의료, 교육, 물류, 제조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될 수 있어 시장 잠재력이 큰 품목. 헬스케어 및 핀테크 유망.
	경쟁동향	• 글로벌 빅테크 기업, IT 솔루션 스타트업 등 지역·규모를 넘어서 산업별 니즈에 맞춘 서비스 경쟁 치열
	진출방안	• 개인정보, AI 규제 등 현지 법률 리스크 극복 위해 싱가포르 내에서 현지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시장에 진입할 필요

첨부 3

'25년도 KOTRA 주요 사업 (잠정)

구분	주요 사업명	일시/장소
사절단	조선 해양 무역사절단	3월/싱가포르
	종합 무역사절단	5월/싱가포르
유동/ 소비재	콜드체인 활용 식품 수출 및 판촉 지원 사업 [잠정]	연중/온라인
	미니 한류 박람회 [잠정]	상반기/싱가포르
	현지 e커머스 협력 입점 및 판촉 지원 사업	연중/온라인
전시회	싱가포르 해양산업 전시회 [잠정]	3월/싱가포르
	싱가포르 정보통신 전시회 [잠정]	5월/싱가포르
	세미콘 동남아 전시회 [잠정]	5월/싱가포르
	싱가포르 국제 주얼리 엑스포 전시회 [잠정]	7월/싱가포르
	싱가포르 프랜차이즈 및 라이선싱 전시회	9월/싱가포르
	싱가포르 AI·빅데이터 전시회	10월/싱가포르
취업	노무 및 인사관리 세미나	상반기/싱가포르
	졸업 멘토와 찾아가는 취업 멘토링	하반기/싱가포르

첨부 4

'25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 주요 정치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		

□ 주요 경제·통상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싱가포르 정부 예산안 발표	2025.2~3월	
한국-싱가포르 수교 50주년	2025.8월	1975년 8월 8일 양국 수교
싱가포르 총선거	2025.11월	5년마다 실시

□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싱가포르 해양산업 전시회	3월	
싱가포르 정보통신 전시회	5월	
세미콘 동남아 전시회	5월	
싱가포르 국제 주얼리 엑스포 전시회	7월	
싱가포르 프랜차이즈 및 라이선싱 전시회	9월	
싱가포르 AI·빅데이터 전시회	10월	

* KOTRA 전시회 지원 여부는 무관하게 현지 개최 전시회 중 발췌

〈작성자〉

연번	작성자	직책	소속	Tel	Email
1	윤수현	과장	싱가포르 무역관	6426-7207	sh.youn@kotra.or.kr

2025 싱가포르 진출전략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비즈니스 환경 분석

진출전략

